

제 2006학년도
석사학위(Th.M.) 청구논문

개혁주의 신앙고백에 나타난 성경관에
관한 연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신 학 과

조직신학전공

신 성 호

개혁주의 신앙고백에 나타난 성경관에
관한 연구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 년 12 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신 학 과
조직신학전공
신 성 호

신 성 호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指導教授 김 성 욱 _____

審査委員 박 찬 호 _____

권 문 상 _____

김 성 봉 _____

웨스트민스터神學大學院大學校

논문개요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말씀인 기록한 성경(Scripture)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말씀한다. 이 성경은 사람의 지혜와 감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교회의 역사는 주장한다.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시고 또한 자기 약속에 대하여 말씀으로 기록하여 남기셨기에 성경의 신적 기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시작된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이성과 특별한 체험을 근거로 성경에 관하여 이론(異論)을 제기하고 그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였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초대교회부터 계속되던 인간들의 반론들, 곧 성경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거나 반박을 통하여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현대의 신학적 흐름에서는 성경에 관한 논의는 수그러들고 대신 성경해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된다. 그러나 성경관에 대한 분명한 규명이 없이 해석의 문제로 넘겨버리는 것이고, 신학의 중요한 부분을 외면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나 신적인 기원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관의 차이를 무시하고, 해석의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를 펼치는 것은 신학적 논쟁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의 성경해석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성경관에 대한 개혁주의적 전통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사적인 분석과 함께 조직신학적인 고찰을 통하여 성경과 교회 혹은 전통이란 주제에 대한 개혁주의적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 결과 초대교회사 가운데 성경이 확증되지만, 교회가 이 정경을 만들었거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록들에 정경의 권위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작성된 그 순간부터 즉시 교회에서 권위를 지니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 믿음과 생활의 규범으로서 활동한 것임을 주장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권위를 부여하시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viewpoint of the Bible in Reformed Confessions

Shin Sung Ho

Department of Theology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God tells his will through his words, the Holy Scripture. The history of church has insisted that Scripture had been written not by wisdom and emotion of human beings but by the Holy Spirit. God revealed his will to prophets and apostles and recorded his promise into the Words. This study begins with the recognition of the divine origin of the Bible.

Looking into the history, human beings have posed an objection to the Scripture and challenged its authority. Dissensions of human beings were raised that the Scripture should be modified.

Especially in the modern current of theology, discussion of the Bible itself has been faded away. Instead, the discussions of the Scripture interpretation have spreaded out actively. But it is to turn to the translation of the Scripture without the biblical viewpoint and to neglect the important part of theology. It is just a temporary expedient to theological argument to neglect the difference of basic viewpoints about the authority of the scripture and its divine origin and to discuss the various ways of interpretation.

According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formed tradition about the biblical viewpoint, not the biblical interpret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church history and the research of systematic theology, the Reformed standpoint about the Scripture, church and tradition is arranged in this paper.

As a result, the Bible is verified in the early church history. However church did not make the Bible nor was the authority of the Bible endowed by prophets and apostles, but from just when the Bible was made, it had an authority in the church and was used as a norm of faith and life. Also, the authority of God's words comes not from human beings but from the God who puts an authority and recognizes it.

헌사(獻辭)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과 기도로 후원해준 복음의 동역자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두 아들,
그리고 생전에 너무 고생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재발한 암과의 투쟁에 힘겨우셨지만,
이제는 주님의 품에 안겨 안식하고 계시는
영원한 스승이신 어머니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06년 11월에

신 성 호

감사의 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임에도, 그분은 때마다 저의 허물과 연약함을 감당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껏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 이유로 신학을 다소 터부시하는 선교단체의 분위기 속에서 사역 중에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Th.M. 과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목회 중에 학업을 감당하는 것이 간단치는 않지만, 열정적이며 자상하신 권문상, 박찬호 김성욱, 김성봉 교수님들의 배려와 격려가 있어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심히도 부족한 제가 끝까지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목자처럼 지도해 주신 김성욱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후배 목자들의 교육과 인재양성에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투자를 하시며 섬기시는 UBF 한국대표이신 이사무엘 목사님,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UBF 세계대표이신 전요한 선교사님 내외분, 그리고 저의 일대일 목자이신 시카고의 문누가, 폴린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과정 내내 함께 공부하며 격려해 주신 안암 센터의 김모세(학모) 목사님과 지역 교회를 섬기시는 동료 목사님들, 대학로 UBF의 이요셉 목사님, 동료 목사님들, 저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로 후원하고 섬겨주신 북악 UBF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늦게나마 신학을 공부하며 환기를 할뿐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쓰실 일에 예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해준 아내 신리브가(조계정) 사모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랑하는 딸 리브가, 그리고 아들 요한, 바울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

목 차

논문개요	iv
헌사(Dedication)	vii
감사의 글(Acknowledgement)	viii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논문의 의의와 연구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3
제 3 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6
제 2 장 연구사적인 고찰	8
제 1 절 성경관에 관한 교회사적 점검	8
1. 교부 시대	8
2. 중세 시대	10
3. 종교개혁 시대	11
4. 근대신학 시대	12
제 2 절 성경에 대한 도전	13
1. 초대교회 시대의 도전	13
가. 마르시온	15
나. 영지주의자들	15
다. 비영지주의자들	17
라. 그 외의 사람들	18
2. 근, 현대교회 시대의 도전	19
가. 델리취	19
나. 하르낙	20
다. 볼트만	21

라. 바움가르텔	23
마. 다른 학자들	24
제 3 장 루터의 성경관	27
제 1 절 Sola Scriptura의 정신	27
제 2 절 루터의 이해	29
제 4 장 칼빈의 성경관	36
제 1 절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성경관	36
제 2 절 칼빈의 신학적 근거	40
제 5 장 벨직신앙고백의 성경관	43
제 1 절 시대적 배경과 구성	43
제 2 절 고백문의 분석과 의미	45
제 3 절 외경, 위경의 근거와 비판	58
제 6 장 웨스터민스터신앙고백의 성경관	62
제 7 장 현대 개혁주의적 입장	70
제 1 절 벨코프의 성경관	70
제 2 절 칼바르트와 성경관 비판	73
제 3 절 버스웰의 성경관	75
제 4 절 바빙크의 성경관	77
제 8 장 결 론	82
참고문헌	84

제 1 장 서론

제 1 절 논문의 의의와 연구목적

본 주제에 관한 연구는 목회자로서의 고민과 신학을 배우는 자로서의 고민에 의한 시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전에 교회의 성도들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사사기의 입다 사건¹⁾을 다룰 기회가 있었다. 그 해석과 설교 그리고 적용과 관련하여 입다의 서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신학자에게 물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의외의 답을 접하며 본 주제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 대답의 중요한 핵심은 당시에 인신제사를 규제할 법이 아직 없었으니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입장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도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을 것이지만, 당시에 인신제사를 규제할 법이 없었다는 표현은 전문용어로 표현하자면,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말하는 것으로 죄를 죄로 규정하려면 먼저 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런 율법이 없다는 설명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 논리적 근거는 모세 오경은 사사기보다 후기 즉 포로기에 쓰여진 작품이라는 전제를 담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단순하게 성경의 연대를 재설정하는 것을 넘어 성경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²⁾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본 주제에 대한 연구의 일반적인 필요에 관하여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성도가 성경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 기독교의 모든 신앙 혹은 신학과 교리적 체계는 성경을 근거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성도의 신앙 인격과 신앙 형태는 성경을 어떻게 배우며 또한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따라 좌

1) 사사기 11, 12장, 특히 11:30-40.

2) 신명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의 기록 연대와 관련하여 모세 당시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 입장과(예를 들어 E. J. Young, *구약총론*, 홍반식, 오병세 옮김(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0), 100-113) 후대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 입장(예를 들어 버나드 W. 앤더슨, *구약성서 이해*, 강성열, 노항규 옮김(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37-111)이 있다.

우된다고 할 수 있기에, 성경에 대한 이해 즉 성경관에 대한 바른 정립은 바른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경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를 갖고 있다. 즉 다양한 성경관들이 존재한다. 현대 정신을 수용하고 있는 이성주의 성경관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다루려고 하는 입장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는 자세이다. 만일 이성과 말씀이 대립하게 되면 이성주의자들은 이성에 더 큰 권위를 둔다. 이들은 비록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성에 성경이 맞지 아니하면 그들은 성경을 버리고 인간의 이성을 취하는 사람들인데, 가장 중요한 성경의 계시성을 부인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다. 이러한 이성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 그리고 자유주의신학자들이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별히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성경을 ‘문서 비평’, ‘양식 비평’, ‘문학 비평’이라는 형태로 다루어 결과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추락시킨다.³⁾

이러한 이성주의자들과 반대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의 성경관 역시 문제점을 분명히 드러낸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보다 자신의 체험이나 감정을 더 위에 둔 비성경적 태도로 신비주의자들은 곧잘 성경의 권위를 떠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더욱 강조하는 나머지 소위 직접계시론을 말한다.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직통계시’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한다.⁴⁾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대할 때에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대한다. 가톨릭은 성경을 강조하지만, 성경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교회의 권위이다. 그 이유는 교회가 성경(정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신구약성경을 교회가 만들었고, 또한 지켜왔고, 그리고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이성주의자가 인간의 이성을 만능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이성이 오류

3) 월터 카이저, *구약 성경신학*, 최종진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7-58.

4) 김영재, *기독교 교리사 강의*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6), 15-17. 김영재, *기독교 교회사* (서울: 이레서원, 2001), 558-574.

를 범할 수 없다는 그런 잘못된 근거위에 세워진 것처럼, 로마가톨릭은 교회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하나의 근거위에 세워진 것이다.⁵⁾

최근에 다시금 논의되기 시작한 성경관으로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 생긴 하나의 신학적인 경향으로 실존주의적 철학 방법론을 통해 성경을 보려고 하는 신정통주의의 성경관이 있다. 이들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며 체험된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 성경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경험될 때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경은 신적 계시에 대한 인간의 증거일 뿐으로 단지 계시를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 이차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⁶⁾

다양한 성경관에 대하여 개혁주의적인 입장의 성경관이 어떠하며, 그 본질적 강조가 어디에 있고 또한 그 정신을 잇는다면 현재 어떤 면을 강조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전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개혁주의 성경관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장하고, 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붙들고 지켜나가야 할 정통 성경관이다. 이러한 성경관을 연구함에 있어서 먼저 그 방법론을 언급하고자 한다.

신학을 연구하는 방법에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하는 것과 인간 이성에서 출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듯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혹은 성경을 보는 관점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과 인간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성경을 한낱 인간의 작품으로 보고서 취급하게 되면 그 결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5) 도날드 G. 블러쉬, *복음주의 신학의 정수(1)*, 이형기, 이수영 옮김(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86-95. 김영재, *기독교 교리사 강의*, 13-15. 김영재, *기독교 교회사*, 487-495, 614-618.

6) 데이비드 L. 물러, *칼 바르트의 신학사상*, 이형기 옮김(서울: 엠마오, 1996), 61-64.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무너지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생활의 기초가 되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객관적 진리의 기준인 성경이 무너지면 남은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체험뿐이다. 그런 것들은 주관적이고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적 말씀’이니 ‘내적 빛’이니 하면서 성경보다 인간의 체험을 중요시하던 경건주의는 점점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성경을 등한시하고 약화시켰다. 그 결과 경건주의는 얼마 가지 않아서 합리주의가 자라나는 토양이 되어 버렸다. 18세기 이후 자유주의 신학은 대부분 경건주의자들 가운데서 나왔다. 개신교 최초의 체계적인 성경비평가인 제플러⁷⁾, 근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슬라이어마허⁸⁾ 이들 모두가 경건주의 목사의 아들들이었다. 어떻게 양극단처럼 보이는 경건주의와 합리주의가 서로 만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관에 있었다. 경건주의자들은 처음에는 올바른 성경관의 토대 위에 체험을 추구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성경을 무시하고 약화시키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 가면 객관적인 기준인 성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내적 체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다.⁹⁾ 그 결과 그들은 성경을 마음껏 비평하게 되었으며, 성경이 있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객관적인 토대인 성경이 무너지고 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같이 무너지고 만다.

성경비평가들은 처음에는 창세기 1-3장이 진화론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신화 또는 설화라고 하여 그 역사성을 부인하였다. 나아가서 창세기 1-11장까지의 역사성을 부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현대인의 사고에 맞지 않는 것을 잘라내게 되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복음서의 기록 중 초자연적이거나 이적들이나 부활 기사는 신화라고 하여 잘라내었으며,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거나 메시아로 고백하는 부분들은 후대의 삽입

7) 김영재, *기독교 교회사*(서울: 이레서원, 2004), 587-588.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개념이 제플러의 책에서 유래되었다. 그는 교의는 시간과 공간의 조건에 따라 형성된다고 이해하고 정통주의의 교리에 구애받지 않고 성경 자체를 연구한다고 했다. 즉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성경을 둘러싼 울타리를 제거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문서 비평을 통하여 말하고, 베드로후서 및 계시록의 저자 문제를 두고 비평하였다.

8) Ibid., 605-607.

9) 벵트 헤그룬트, *신학사*, 박희석 옮김(서울: 성광문화사, 1990), 453-468.

이라 하여 잘라내고 말았다. 그러다보니 남는 것은 현대인의 사고에 맞는 윤리적 예수, 인간 예수의 모습만 남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원자 예수는 없어지고 그저 윤리적 모범으로서의 예수밖에 남지 않게 된다. 결국 문화개신교운동을 전개한 리츨처럼 죄에 대한 언급 없는 그리스도론 혹은 구원론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 대한 인간적 기준의 적용과 그 평가를 피하여 성경을 윤리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무너지고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무너지고 만다. 따라서 성경이 무너지면 윤리도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무엇을 따라 행해야 할 것인가? 그 규범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 그런데 성경이 무너지고 나면 남는 것은 인간의 이성뿐이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된다. 객관적인 기준인 성경이 무너지고 나면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결국 자율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자율주의의 바탕인 인간의 이성은 보편타당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시대의 조류를 따라 윤리의 기준도 자꾸 변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를 ‘동성연애’에서 찾을 수 있다.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성경에 칼질을 하고 만다. 왜냐하면 성경을 그냥 두고서는 동성연애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동성연애를 명백하게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로마서 1장 등의 말씀을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며 오늘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배척해버린다. 실제로 오늘날 서구 교회들이 이러한 새로운 성경관에 따라 동성연애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듣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성경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윤리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성경관이 잘못 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 전부가 무너지고 만다. 성경을 오류가 없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오류가 있는 인간의 작품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 생명이 걸린 문제이다. 성경관이 잘못 되면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잘못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구원도 위태롭게 된다. 따라서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관을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은 타협하거나 봐주거나 관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여기에 올바른 성경관 확립의 필요성과 절박함

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제 3 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본 논문은 조직신학적인 주제와 연구 그리고 역사신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본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최근의 성경관에 대한 논증은 학계에서 거의 사라지고 대신 해석학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¹¹⁾ 즉 대부분의 서구 학자들이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성경관에 대하여 확실하게 언급하지 않으면서, 성경관에 대한 논의는 접어두고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성경해석의 문제로 그 논의의 중심점을 바꾼 격이 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또한 연구사에서 다시금 다루게 될 것이지만, 성경관의 문제와 성경해석의 문제는 근본적인 큰 차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경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관의 중요성과 이를 기초로 하는 바른 신학을 정립하고자 연구하는 것이다.¹²⁾

그리고 본 논문이 신학연구에 작은 공헌 혹은 독창성을 기여하기 위해 특별히 벨직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정리하고자 하였다. 종교개혁시기의 개혁주의적 입장을 잘 견지하면서 전래되었으나, 현대의 한국기독교계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찾고 정리하며 분석하는 것은 또 다른 연구의 범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성경을 믿는다는 표현이 실존주의적 고백이나 이성주의적 고백 혹은 신비주의적 고백이 서로 섞여 혼동을 이루기 쉬운 요즘의 책들을 넘어 먼저 역사적인 진단과 그 표현에 대한 분석을 하는 가운데

10) 체스터 K. 레만, *성경신학I*, 김인환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5), 31-53. 밀라드 J. 에릭슨, 139-150. 알리스터 맥그래스, 59-129.

11) G. F. 하젤, *현대신약신학의 동향*, 장상 역(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과 또한 그의 *현대구약신학의 동향*, 이군호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참고.

12)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해석학**의 문제와 **권위**의 문제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 성경의 권위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 어느 한 가지 특정한 성경 해석에 헌신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더 이상 성경 연구(biblical scholarship)나 성경의 권위에 헌신하는 일을 옹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복음주의의 내부에서 중요하고도 잠재적인 어려움을 지닌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112.

개혁주의적 성경관을 정리하고자 한다.¹³⁾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다루는 것은 교회사적인 고찰이다. 성경관의 문제는 최근의 신학적인 문제나 혹은 종교개혁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있어온 문제임을 밝힌다. 그리고 그 이후 시대의 많은 학자들을 언급하기보다 최근에 나타나는 성경관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교회사적 정리를 해본다.

제3장에서는 본 논문의 성경관에 대한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된 벨직신앙고백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벨직신앙고백의 전체적 구성 가운데 성경관의 위치를 살펴면서 본 신앙고백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제4장은 본 연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벨직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성경관에 대한 고백문을 다룬다. 성경관과 관련된 고백문을 세밀하게 분석하며, 그 고백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무엇인가를 밝힌다. 더 나아가 그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생각한다.

이어지는 제5장은 본 연구의 또 다른 축으로서 교회사적인 비교이다. 벨직신앙고백서가 종교개혁 당시의 다양한 신앙고백 가운데 하나이기에, 동시에 나타나는 다양한 시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당시의 성경관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지만 이 부분도 광범위하기에 루터와 칼빈의 성경관을 살펴보고, 이러한 신학이 정리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함께 분석한다.

제6장은 본 논문은 지난 2년 동안의 신학 공부와 학문적 사고 그리고 그와 연관된 훈련들이 이 글로 통하여 정리되는 과정으로 버스웰, 벨코프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칼 바르트의 성경관에 대한 비판과 바빙크의 성경관을 정리한다.

13) 본연구의 주제와 관심은 2005년 2학기 김성욱 교수와 함께 연구한 성경해석사관 과목과 2006년 박찬호총장님의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이란 과목을 통하여 성경관의 중요성과 그것을 기초로 파생되는 문제를 살피는 것이다. 또한 성경관 혹은 성경 해석과 관련된 독일어 자료는 김성욱 교수님의 해석과 설명 그리고 분석에 많이 의존한다. 아울러 벨직신앙고백서의 경우 여러 신앙고백서들을 언급할 수 있으나, 본 신앙고백을 가장 많이 그리고 세밀하게 다루고 연구하신 김성봉 교수님의 도움을 받았음을 표한다. 다른 학자들보다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직접 번역하며 분석하였기에 영어표현과 비교하여 또 다른 번역을 내는 것보다 김성봉 교수님의 작품(<http://www.sbpcc.co.kr>)을 인정하는 것이 더 솔직한 배움의 자세임을 분명히 밝힌다.

제 2 장 연구사적 고찰

성경관에 대한 논의는 근대에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심각한 논쟁이다. 따라서 교회사에 나타나는 성경관의 흐름을 먼저 분석하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룬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는 본문에서 다룰 것이기에 논외로 미루고, 대신 20세기의 성경관에 대한 근, 현대적 논쟁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제 1 절 성경관에 관한 교회사적 점검

1. 교부 시대

사도들을 뒤이어 교회지도자가 된 초기의 교부들은 신약성경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과 같이 구약성경도 그들 나름대로의 본래적 권위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이교도적인 배경으로부터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주요대상으로 기록한 자신들의 저작물에서 구약성경을 최대한으로 인용했다. 교부들은 또한 비록 당시 신약성경이 아직 최종적 형태를 갖추지는 못했으나, 장차 4권의 복음서와 사도들의 저작물들은 구약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정경으로 인식될 것임을 분명한 용어들로써 입증했다. 오늘날의 신약성경에 포함되어진 책들 중 거의 모두가 교부들의 저작물 가운데서 인용되었거나 언급되어진 사실이 발견된다. 이를 볼 때 그들은 성경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¹⁴⁾ 3세기의 교부들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터툴리안은 구약과 신약 둘 다 똑같이 영감되었으며, 그 자체로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을 이룬다고 주장했

14) 뵈트 헤그룬트, *신학사*, 17-29.

다.¹⁵⁾ 유세비우스는 성경에서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을 건방진 일로 보았다. 또 4세기의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구술하신 것을 받아 적었다고 말했다¹⁶⁾, 크리소스톰은 사도들을 “하나님의 입”이라고 불렀으며¹⁷⁾, 6세기의 그레고리 1세는 성령을 가리켜 성경의 참된 저자라고 하였다.¹⁸⁾

이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는 시작에서부터 구약 성경 말씀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기독교의 정경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신약의 정경화는 오랜 세월이 걸쳐 이루어졌다. 신약의 4복음서와 13개의 바울 서신을 포함하는 27권의 책들이 우리가 현재 가진 대로의 신약 정경으로 된 것은 AD 367년에 교부 아타나시우스가 자신의 39번째 부활절 메시지에서 발표한 이후부터였다. 동방과 서방 교회는 아무 이의 없이 아타나시우스의 정경 선언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AD 144년에 영지주의자 마르시온¹⁹⁾이 누가복음과 10개의 바울 서신만을 정경이라 말한

15) 해롤드 린젤, *성경에 관한 논쟁*, 정창영 역(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62-64. 터툴리안은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며 성령의 선견지명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가지고 이교도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배제되었다고 주저함 없이 말하고 있다. 클레멘트 또한 신구약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사실을 의심 없이 믿었다. 그는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결코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16) Ibid., 68-70. 그는 4복음서들 간에는 어떠한 불일치도 없다는 견해를 굳게 붙잡아야만 한다고 말한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은 비틀거리게 된다고 말한다. 또 그는 자신이 진리와는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에 대한 그릇된 견해에 직면하게 되면 그 견해를 잘못된 성경 본문을 사용한 결과로 보든지, 아니면 그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여기든지, 아니면 그 본문 말씀에 대한 어거스틴 자신의 이해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17) Ibid., 66-67. 크리소스톰은 성경의 기자들이 영감은 받았지만 기록은 그들 자신의 말로 했으며 개별적인 특성들은 항상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 그는 복음서들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기록에 상이점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성경이 만약 진실된 역사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면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교리적이고 영적인 교훈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거짓된 역사에 근거해서 교리나 영적인 교훈을 세우는 것은 흔들리는 토대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8) 벵트 헤그룬트, *신학사*, 203-207.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상)*, 권수경, 이상원 옮김(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151.

19) 말시온에 대하여서는 더 언급할 것이지만, 그 외에 많은 무리들이 초대교회에서 성경관에 의한 신학적인 문제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2세기 교회사에서 기독교에 심각한 위협을 던진 영지주의자들 역시 구약성경을 적대시하며 동시에 유대교에 대한 강한 반발을 표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Simon Magnus, 뱀을 숭배한 오파이트파(the ophites) 가인과파(the Cainites) 또한 Saturnilus를 위시한 시리아파, 그리고 Valentinus를 중심으로하는 애굽학과와 프톨레미를 중심으로 하는 이태리학과가 각기 다른 색채를 띠지만, 비슷한 성경

이후 자연스럽게 정경화의 논의가 이루어졌고 4세기 중엽에는 마침내 거의 견해의 일치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노회나 대회에서 정경의 문제를 두고 공적인 결의가 없었던 점에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²⁰⁾ 교회가 성경에 권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대로 시인하고 그 권위에 순복한 것임을 말해주는 때문이다.

2. 중세 시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확고한 신념은 중세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²¹⁾ 그와 동시에 ‘기록된’(written) 계시뿐만 아니라 ‘구전된’(oral) 계시도 있다는 사상이 전개되었다. 이른 바 사도적 전승의 개념이 그것이다.²²⁾ 사도적 전승 개념은 마르시온이나 영지주의자들 같은 이단들에 대항하여 보편 교회야말로 원래의 복음과 예수님의 진정한 교훈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서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 같은 이단들은 자기들만이 일련의 비밀에 싸인 예수님의 원래 메시지를 소유한다고 주장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사도적 전승 개념은 대를 이어 전해지면서 점차적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전승이 성경의 권위를 확립하고 성경의 바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전승의 인도함이 없다면 성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되어 그 권위가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했다. 이 이론의 발전은 올바른 성경 개념에 손상을 입혔다. 사실 성경이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으로는 계속 인정되고 있었지만 그 권위와 올바른 의미는 전승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이는 곧 교회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소위 사도적 전승에 대해 인정된 중요성은 심지어 성경의 절대적 필요성, 충족성, 명확성 등에

관의를 보여준다. E. J. Young, *구약총론*, 114-118.

20) 김영재, *기독교교회사*(서울: 이레서원, 2004), 94-96.

21) 참고. 해롤드 린젤, *성경에 관한 논쟁*, 70-73.

22) 유스토 L. 곤잘레스, *초대교회사*, 서영일 역(서울: 은성, 1995), 110-113. 사도 전승 이론을 쉽게 이야기 한다면, 만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어떤 비밀의 지식들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것을 그가 교회를 맡겼던 사도들에게 전달하셨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 부정까지 포함하는 심각한 정도의 결과를 불러오고 말았다.²³⁾

3. 종교개혁 시대

개혁자들은 사도적 전승과 교회의 권위를 높이는 로마 교회와 대립되는 입장을 취하여 이른 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가치를 내세웠다.²⁴⁾ 그들은 성경을, 그리고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다. 개혁자들은 사도적 전승이라 불린 것의 권위를 배격하고, 성경만을 믿음과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권위요 절대적인 규범으로 인정하였다. 성경이 교회의 증거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그들은 대담하게 성경의 자증을 선언하였다. 비록 그들이 영감교리를 17세기 신학자들이 발전시킨 것과 같은 정도로 완전하게 전개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이 성경 전부를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 그들의 글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²⁵⁾ 비록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을 구분하였으며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과 같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자주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자세히 살펴볼 때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다. 개혁자들의 작품에 근거해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과 동일시했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의 완전성에 대한 교리가 체계적으로 전개된 것은 17세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3) 참고. 벵트 헤그룬트, *신학사*, 203-288.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상)*, 151.

24) 김성욱, “종교개혁 기념강좌-종교개혁의 의의”, 23-24. 해롤드 린젤, *성경에 관한 논쟁*, 73-83 참조.

25) 칼빈, *기독교강요* 제1권, 김문제 역(서울: 혜문사, 1986), 153-156. 참고로 이 논문에서 인용된 칼빈의 기독교강요는 김문제 번역임을 밝힌다.

4. 근대 신학 시대

합리주의의 영향 아래 성경을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으로 보는 엄밀한 개념에 대해 강한 반대가 생겨났다. 다양한 철학적, 과학적 연구와 비평적, 역사적 연구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보편적인 신념을 위태롭게 만들었고, 따라서 성경의 신적 영감 교리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²⁶⁾ 성경을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으로 보는 낡은 개념은 지지할 수 없는 것으로 무시되어 버리고 많은 다른 견해들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한동안 성경은 부분적으로는 인간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신적이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었으나, 신적인 계시가 성경에 담겨 있으며 따라서 성경의 그 부분은 영감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신적인 것이 끝나고 인간적인 것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인지, 아니면 성경의 영감된 부분이 어디이고 영감되지 않은 부분이 어디인지 말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밝혀지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영감 개념을 버리고 쉽게 성경을 신적 계시에 대한 인간적 기록으로 인정해 버렸다.

하나님의 내재성 교리를 강조한 관념론 철학과 슐라이에르마허의 주관주의는 계시 및 영감에 대해 새로운 개념에 도달하였다.²⁷⁾ 영감은 그리스도인 일반에 대한 영적인 조명과 정도의 차이만 있는 특별한 신적 조명으로, 또 계시는 그 결과로 생겨나는바 사물의 본성에 대한 고도의 통찰력으로 보게 되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계시와 인간의 발견물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결과를 빚었다.²⁸⁾ 이 견해에 따르면 성경은 아주 예외적인 인간적 경험에 대한 기록-순전히 인간적인 기록-이 되어버리고 만다.

위기의 신학은 계시의 개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초자연적인 행동으로 보아 그 합당한 위치로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신학 역시 성경의 무오한 영감 교리를 포기하고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과 동일시하지 않고 있다.²⁹⁾ 성경은 신적 계시에 대한 인간의 증거일 뿐으로서 단지 계시를 증거한다는

26) Alister E. McGrath, *역사속의 신학*, 김흥기, 이형기, 임승안, 이양호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279. 김영재, *기독교 교회사*, 601-618 참고.

27) 김영재, *기독교 교회사*, 605-607.

28) Ibid., 607.

이유 때문에 제이차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근대 신학에 이르러서는 성경마저도 이성의 판단 아래 놓이게 되고 말았다.³⁰⁾

제 2 절 성경에 대한 도전

1. 초대교회시대의 도전

주후 1세기의 기독교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오직 구약성경만이 그들의 유일한 성경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교회는 구약을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또한 그 자신에게 적용하였으며, 그들의 모든 선포는 구약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초대교회에서 구약을 성경으로 수용하면서 전제한 내용은 구약의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란 사실과 예수는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두 전제를 바탕으로 주님의 죽음으로 생성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참되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교회에 주어진 말씀으로 수용하였다.³¹⁾

그러나 성전파괴 등과 같은 심각한 사건을 겪으면서, 구약에 대한 기존의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교훈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인식하며 고민하는 과정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예로, 구약의 희생제사는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무효화되고, 공동체의 일원을 상징했던 할례는 세례로 대체되었다고 가르치는 사도들의 교훈과, 구약의 의식규정들과 법규정들이 여전히 효력이 있다는 유대교적 가르침 사이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³²⁾ 당시 유대교적 가르침을 따르면 더욱 철저하게 율법과 의식을 지키는 것이 선민

29)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 개요*, 원광연 옮김(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108-109.

30) 루이스 벨코프, *조직신학(상)*, 91-98.

31) 김영재, *기독교 교회사*, 49-54, 94.

32) Ibid., 55-57.

의 삶과 자세란 주장에 대하여,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르며,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기에 의식과 제도적인 것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을 밝히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³³⁾

비록 구약은 확정되어 있으나, 구약 그리고 외경들의 혼재 속에서 더불어 발생한 사도들의 편지들과 그 외의 초대교회의 문헌들 사이의 구분이라는 중요한 문제는 결국 4세기 말 교회의 결정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확정과 승인의 과정 역시 교회가 정경을 결정하였다기보다는 교회가 통상적으로 승인해 온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통일성을 재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³⁴⁾

이러한 성경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현대 신약학의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즉 구약과 신약을 연구함에 있어서 중간기 문헌에 대한 인식 혹은 외경의 자료에 대한 분석과 관련한 자세이다. 중간기 문헌이라는 선입견에 따라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배경사와 내용적 통일성을 증명하는 논문들이 19-20세기에 많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외경이나 초대교회의 문헌 혹은 중간기의 문헌들의 무용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에 대하여 배경사적인 연구로는 통일성을 수용할 수 있어도, 내용적 통일성을 확증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랫동안 고민하며 토론의 과정을 거쳐 신구약을 확증하였을 때, 그 통일성과 충족성이 기초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도성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며 중간기 문헌 혹은 초대교회의 자료들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접근하는 것은 성경해석의 문제이기 이전에 먼저 성경관과 연결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성경에 대하여 비판을 가한 대표적인 입장들에 대하여 교회사적인 정리와 진단을 하고 그 대안으로 개혁주의적 성경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33) 참조. W. H. Schmidt, *Einfuehrung in das Alte Testament*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396.

34) 유스토 L. 곤잘레스, *초대교회사*, 106-108.

가. 마르시온(Marcion: 85-160년경)

소아시아 출신의 선주였던 마르시온은 구약을 완전히 포기하고 신약을 탈유대화하려고 했다.³⁵⁾ 그의 가장 기본적인 성경관은 간략하게 구약에서는 율법이, 신약에서는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이다. 즉 예수는 자신을 통해서 계시되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구약의 하나님은 복수심에 불타는 공의의 여호와라는 주장이다.³⁶⁾ 이러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마르시온은 결국 심판과 전쟁의 유대적인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동일시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게 된다.³⁷⁾

신앙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을 펼치고는 있지만, 과격한 바울주의자로 구약을 신약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의 율법과 문서로 간주하여 결국 구약 전체를 거부한 것이 바로 마르시온이며 그의 후예들이다. 결국 이러한 성경관 때문에 그가 인정하는 정경은 탈유대화된 10편의 바울서신(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과 누가복음뿐이다.³⁸⁾ 그리고 복음과 율법의 대립적 전체는 율법의 하나님과 복음의 하나님이라는 이분법적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다.³⁹⁾

나. 영지주의자들

2세기에 그리스도 교회의 강력한 위협이 되었던 영지주의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적대시하였으며 유대교에 대하여 강한 반감을 나타내 보이는 특징을 보

35) 마르시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J. J. Clabeaux, "Marcion", *The Anchor Bible Dictionary* 4, 1992, 514-516.

36) 참조. J. Schreiner, "Grundaussagen des Alten Testaments", E. Zenger(Hrg.), *Segen fuer die Voelker: Gesammelte Schriften zur Entstehung und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Wuerzburg: Echter, 1987), 375.

37) 참조. E. Zenger u.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Berlin/Koeln: Kohlhammer, 1995), 12.

38) 참조. E. Zenger, 12.

39) 참조. A. H. J. Gunneweg, *op. cit.*, 100.

여준다.⁴⁰⁾ 영지주의에 의하면 영혼과 물질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기초로 하여 세계의 궁극적인 존재를 영혼 곧 영적 세계에 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질에 속한 것을 천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영적인 존재에 관한 것은 그 직접 원인이 최고신으로부터 유출된 데미울고스(Demiurge) 이었다고 설정하고, 여기에서 유출된 데미울고스는 낮은 존재로써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주장이다.⁴¹⁾ 이러한 이론의 근거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의 하나로 간주하며, 특히 물질을 창조하였다고 주장하는 구약의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근거가 된다. 영을 창조해야 고등한 신이 될 것이지만 물질과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은 최고의 신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많은 영지주의자들로 하여금 구약 성경에 대하여 적대적인 비평을 하게 한 근본 원인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율법이나 예언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시몬 마구스(Simon Magus)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⁴²⁾ 사람에게 선악의 지식을 부여한 뱀은 승배를 받아야만 했고 구약의 하나님은 멸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오파이트파(The Ophites)⁴³⁾나 가인을 데미울고스의 진노 하의 순교자라 하며 그를 숭배한 가인파(The Cainites)⁴⁴⁾ 역시 비슷한 사상을 견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톨니루스(Satormilus)⁴⁵⁾와 타티안(Tatian)⁴⁶⁾을 위시한 시리아 학파, 발렌티누스((Valentinus)⁴⁷⁾를 위시한 애굽 학파, “플로라 서신”의 저자 프톨레미(Ptolemy)⁴⁸⁾를 위시한 이태리 학파 등을 언급

40) E. J. Young, *구약총론*, 홍반식, 오병세 옮김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0), 115.

41) 벵트 헤그룬트, *신학사*, 46-47.

42) 필립 샤프, *교회사전집* 2권, 이길상 옮김(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435-437.

43) Ibid., 457-458.

44) Ibid., 459.

45) 참고. 후스토 L. 곤잘레스, *기독교사상사*(1), 이형기, 차종순 역(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166-167.

46) 필립 샤프, *교회사전집* 2권, 462-463, 642-646.

47) E. J. Young, *구약총론*, 117. 발렌티누스는 율법의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부인하였다. 성경을 개량한다는 의미에서 성경 본문을 교정하기도 하였고 변경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절을 바꿔 놓고서는 본문의 순서와 계속성을 무시하였다. 한편 영적 세계와 물질세계(소위 ‘이온’설)를 논하는 그의 허황된 사색은 영지주의적 구원론의 토대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조. 벵트 헤그룬트, *신학사*, 47-51.

48) 필립 샤프, *교회사전집* 2권, 451. 그는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므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고 말한다. 모세 오경에 포함된 율법은 한 저자의 손으로 된 것이 아니

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영지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구약 성경을 곡해하고 멸시한 초대교회의 무리들이다.

다. 비영지주의자들

초대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영지주의적 경향에 의하여 성경이 무시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시되는 것과 달리 비영지주의적인 흐름에서도 성경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그룹으로는 유대인 신자들로 구성된 나사렛파(The Nazarites)⁴⁹⁾를 언급할 수 있는데, 그들은 먼저 모세가 오경의 저자됨을 부인했다. 모세의 저작설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해석의 차이로 나타나지 않고 결국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더 확장되기 마련이었다.

이들과는 달리 선지자들을 몹시 미워하여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거부하면서도 모세오경을 인정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 실제에 있어서 모세 오경 중에서도 모세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은 거부했던 에비온파(The Ebionites)⁵⁰⁾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초대교회의 문헌 가운데 ‘클레멘트의 설교집’⁵¹⁾은 특별히 모세에 의하여 선발된 70인 장로에게 모세가 율법을 주었으나, 그 후에 악한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아 어떤 거짓 요소와 내용이 성경에 가해졌다고 주장한다. 성경을 인정하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성경에 거짓 내용과 요소가 있음을 주장하여 성경의 권위와 진실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즉 성경은 여러 방법에서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성경은 잘못된 것이며 사람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또한 켈수스(Celsus)⁵²⁾는 모세가 오경의 저자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창세기의 창조론은 어리석은 것이라 하여 도외시하였고 할례의 의식은 애굽에서

라고 말한다. 일부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부분은 모세와 장로들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남녀를 연합시켜 이혼을 금하셨지만 모세는 이혼을 허락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모순 되게 행하였다고 말한다.

49) Ibid., 408.

50) Ibid., 409-411.

51) Ibid., 411-417.

52) 필립 샤프, *교회사전집* 2권, 102-105.

채택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가 비평을 가한 것은 성경에 나타난 의인법적인 기사였다. 하나님은 옛세 동안의 창조시에 과로하여 피곤하여진 존재라 생각했다.

라. 그 외의 사람들

이 후로도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성경에 대한 비평이 이루어졌다. 유대인의 견해에 따라 초대 교회의 여러 교부들은 에스라를 예루살렘 함락기에 분실되고 못쓰게 된 모든 구약 성경을 회복시킨 율법의 회복자로 인정했다(제4 에스라 14:21). 폴피리(Porphiry)는 “크리스찬을 반박한다”는 책을 써서 성경을 공박했고, 4세기의 배교자 줄리안(Julian the Apostate)⁵³, 5세기 모프수에스티아의 데오도르(Theodore of Mopsuestia)⁵⁴, 7세기 말경 “안내자”란 작품 속에서 창세기에 나타난 것 같이 보이는 여러 가지 모순들을 제시한 시내 사람, 아나스타시우스(Anastasius the Sinaite)⁵⁵, 9세기 경 성경에 대한 논쟁서를 기록하여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주장한 유대인 합리주의자 히위 알 발키(Hiwi al Balkhi)⁵⁶, 10세기 경 이슬람교가 참 종교인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 한 스페인 사람 이븐 하즘(Ibn Hazm)⁵⁷, 15세기 모세가 오경의 저자임을 부인한 안드레아스 보텐스타인(Andreas Bodenstern)⁵⁸ 등이 성경에 적대적인 비평을 가했다.

53) 필립 샤프, *교회사전집* 3권, 49-65, 78-83. 아테네에서 철학에 심취했던 줄리안은 후에 기독교를 포기하였고 구약 성경에 대하여 굉장한 모욕을 가하였으며 모세와 솔로몬을 이교의 입법자와 철학자보다도 훨씬 낮은 지위에 몰아넣었다. 모세의 창조설을 불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54) 에드워드 J. 영, *구약총론*, 124.

55) Ibid., 124.

56) Ibid., 124-125.

57) Ibid., 125.

58) Ibid., 126.

2. 근, 현대교회의 도전

가. 델리취(F. Delitzsch: 1850-1922)

앗시리아 학자이며 구약 연구에 있어서 『대 사기극』(Die grosse Täuschung)이라는 두 권의 책으로 된 유명한 저작을 남긴 델리취에 대한 언급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책의 주된 내용은 구약의 내용이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사기의 연속으로 간주한다.

그가 주장한 비판적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구약의 역사서들은 그 서술방식으로 인하여 역사적 사료로서의 신빙성이 없음을 밝히며 역사적 가치와 그 진실성에 반격을 가한다. 게다가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자나 족장들 그리고 많은 위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데, 특히 구약에서 가장 내세우는 인물인 다윗이나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란 것이다. 그의 비판은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신인 야훼는 특정한 민족의 신으로서 도덕적 수준이 너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로 높으신 세계의 하나님으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과 동일시한 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파악하며, 이러한 가르침을 수용하고 야훼를 하나님으로 수용하는 것은 유대교를 전 세계에 전파한다는 것과 같은 미친 생각으로 평가한다. 또한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예언들의 시대성뿐만 아니라 그 예언의 성취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언들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예언이 쓸데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문학과 작품성 그리고 신앙면에서 우수하다고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시편 역시 잘 살펴보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저급한 사상을 갖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예수가 유대교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수용하는 것은 사기극에 휘말리는 것으로 평가한다.⁵⁹⁾

델리취의 주장을 볼 때, 그 동안의 책에서는 이 주제에 관하여 대부분 해석학

59) 참조. H. Graf Reventlow, *Hauptprobleme de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im 20. Jahrhundert. Ertraege der Forschung Bd. 173*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2), 36-37.

적인 분야에서 언급하거나 구약총론 부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성경의 해석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관 자체에 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의 신학적인 영향을 간접적으로 현대의 많은 학자들 가운데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 하르낙(A. von Harnack: 1851-1930)⁶⁰⁾

독일 개신교 교회사가이며, 특히 교리사와 초대교회에 관하여 중요한 저술을 남긴 하르낙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당시 최고로 유명하며 가장 많이 그리고 널리 소개된 그의 『기독교의 본질(Das Wesen des Christentums)』에서도 성경관이 암시적으로 소개되어 있다.⁶¹⁾ 기독교를 가장 간략하면서도 잘 안내할 수 있는 강의를 책으로 옮긴 것인데, 그의 강의 서론에서 자료를 언급하면서, 구약성경과 신약의 대부분의 성경을 제외한다. 또한 복음서 역시 예수님의 탄생과 구속사를 제외하며, 요한복음이나 바울 서신의 경우 희랍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자신의 강의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믿지 못할 것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그의 신학적인 경향은 1922년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 『말시온: 이방의 하나님에 대한 복음(Marcion: Das Evangelium von fremden Gott)』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하르낙은 구약의 정경성을 부인하게 된 것은 오로지 기독교적인 하나님 개념의 본질에 대한 자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였다.⁶²⁾ 더 나아가 후에는 “주후 2세기에 구약을 거부한 것은 오류였다. 당시의 중심 교회가 이러한 오류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옳았다. 16세기에 구약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당시 종교개혁의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19

60) 참조. 한국 복음주의역사신학회 엮음, *역사신학* 논총 (서울: 이레서원, 2004), 149-151에 기록된 “하르낙의 역사 비판 이해”를 보라.

61) Sung Wook Kim, *Adolf von Harnack Das Wesen des Christums* (Peter Lang: Frankfurt, 2003).

62) 참조. A. von Harnack, *Marcion: Das Evangelium vom fremden Gott*, (Leipzig, 1924), 222. H. 40 에서 재인용.

세기 이후에 와서도 개신교에서 구약을 여전히 성경의 문서로 보존하고 있는 것은 종교와 교회가 불구가 된 결과에서 기인한 것⁶³⁾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주장은 구약을 기독교 성경에서 제거하지 못한 것은 종교와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 자신의 신학적인 전제인데, 그의 영향은 20세기 개신교 신학의 저변에 널리 퍼져있는 것이다.

하르낙의 신학과 그 평가에 있어서 성경관은 그의 신학적 흐름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이다. 그의 신학과 사상 그리고 교회사관을 평가할 때 부차적인 주장을 살필 것이 아니라 그의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성경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기독교 본질 혹은 기독교의 역사관에 대한 입장 역시 성경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관에 관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⁶⁴⁾

다. 볼트만(R. Bultmann: 1884-1976)⁶⁵⁾

하르낙 다음 세대로 그의 신학에 반기를 든 유명한 학자를 언급하자면 변증신학으로 유명한 칼 바르트와 실존신학으로 유명한 루돌프 볼트만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독일 학계에서도 볼트만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데, 신약학자로서 그는 구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구약은 유대인들에겐 계시로 받아들여졌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구약은 더 이상 계시가 아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이미 흘러갔고 끝이 났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더 이상 계시의 역사가 아니다.⁶⁶⁾

볼트만의 구약에 대한 인식에 앞서 언급할 것은 성경관에 가장 중요한 계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며, 그것은 잘못된 것이란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63) A. von Harnack, op. cit., 217. H. Graf Reventlow, op. cit., 40-41에서 재인용.

64) Sung Wook Kim, *Adolf von Harnack Das Wesen des Christums*, 180-183.

65) 참고. R. 볼트만, *신약성서신학*, 허혁 역(서울: 성광문화사, 1981) 106-119 “유대교에 대한 관계와 구약성서의 문제”를 보라.

66) R. Bultmann, “Die Bedeutung des Alten Testament fuer den christlichen Glauben”, *Glauben und Verstehen* I, Tuebingen, 1933=“The Significance of the Old Testament for the Christian Faith”, B. W. Anderson, op. cit., 31.

적 근거와 그 실제성을 의심하면서 구약을 “유산된 역사”(Geschichte des Scheiterns)⁶⁷⁾로 평가한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중요한 개념인 언약(Bund), 하나님의 왕권 통치(Koenigsherrschaft Gottes)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Gottesvolk)이라는 주제를 언급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로 결과되면서 실패가 일종의 약속이 되었다는 것이다.⁶⁸⁾ 볼트만이 다른 학자들과 비슷하게 언약과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들을 말하지만 구약성경을 하나의 약속인데, “신약의 전제(presupposition)”⁶⁹⁾로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결국 구약과 신약의 완전한 신학적 불연속성을 주장하게 되며, 동시에 신약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부활 혹은 놀라운 이적 역시 실제적인 역사가 아니라 고백의 역사라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볼트만의 신학적 입장 혹은 신학 전반적인 경향 역시 그의 성경관에서 시작된다. 그의 영향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의 신학을 비판하거나 평가함에 있어서 주저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성경관의 잘못 때문이다. 이 부분을 해석학적인 문제로 돌릴 경우 논리성과 주석의 문제라는 가벼운 논지로 그칠 것이지만, 성경관의 문제로 인식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학적인 전제 혹은 신학의 근간에 관한 분명한 파악과 분석이 기초되어야 정당한 비판이나 평가 역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⁷⁰⁾

67) R. Bultmann, “Weissagung und Erfuellung”, *Glauben und Verstehen* II (Tuebingen 1968), 186.

68) Ibid., 184.

69) R. Bultmann, “*The Significance of the Old Testament for the Christian Faith*”, 14.

70) 이러한 문제는 구약 해석학의 과제에 속한다. 구약 해석학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답은 학자에 따라 같지는 않다. 그러나 구약 해석학의 과제를 구약 성경이 기독교 신앙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데에는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참조. L. Schmidt, “Hermeneutik II. Altes Testament”, *Theologische Realenzyklopaedie* 15, 1986, 137). 지난날 특히 1960년대 이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인 논란을 벌였다. 이 당시의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의 논문집을 보라: C. Westermann(Hrg.), *Probleme alttestamentlicher Hermeneutik* (Muenchen: Chr. Kaiser Verlag, 1960); B. W. Anderson(ed.), *The Old Testament and Christian Faith: A Theological Discussion* (New York: Harper & Row, 1963). 구약 해석학에 관한 대표적인 교과서로는 다음을 언급할 수 있다: A. H. J. Gunneweg, *Vom Verstehen des Alten Testaments: Eine Hermeneutik*, ATD Ergaenzungsreihe 5,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7. 1988(2. Aufl.); H. D. Preuss, *Das Alte Testament in christlicher Predigt*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84); C. Dohmen/ G. Stemberger, *Hermeneutik der Juedischen Bibel und des Alten Testaments*

라. 바움가르텔(F. Baumgaertel: 1888-1981)

또 다른 신학자로서 바움가르텔을 언급할 수 있는데, 그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구약의 진정한 의미는 오직 부정적인 방식(via negativa)으로만 파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⁷¹⁾ 이러한 신학적 입장을 토대로 펼치고 있는 그의 대표적인 주장을 보면 “구약은 일차적으로 종교에 대한 증언이고, 이 종교는 비기독교적인 종교이고, 구약의 자기 이해에 있어서 구약은 원래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⁷²⁾ 라고 한다. 즉 구약과 신약의 불연속성만이 아니라 단절성 그리고 구약의 무용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움가르텔은 “구약은 복음 밖에 있는 종교로부터 온 증언이다.

(Stuttgart u.a.: Verlag W. Kohlhammer, 1996). 이 주제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라: R. E. Murphy, "Christian Understanding of the Old Testament", *Theology Digest* 18, 1970, 321-332; H. Haag, "Das Plus des Alten Testaments", *Das Buch des Bundes: Aufsätze zur Bibel und zu ihrer Welt* (Duesseldorf: Patmos Verlag, 1980), 289-305; H. Haag, "Vom Eigenwert des Alten Testaments", *Theologische Quartalschrift* 160, 1980, 2-16; O. Kaiser, "Von der Gegenwartsbedeutung des Alten Testaments", *Gesammelte Studien zur Hermeneutik und zur Redaktionsgeschichte*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4), 11-36; O. Kaiser, "Die Bedeutung des Alten Testaments fuer den christlichen Glauben", *Zeitschrift fuer Theologie und Kirche* 86, 1989, 1-17; K. Lehmann, "Das Alte Testament in seiner Bedeutung fuer Leben und Lehre der Kirche heute", *Trierer Theologische Zeitschrift* 98, 1989, 161-170; E. Zenger, *Das Erste Testament: Die juedische Bibel und die Christen*, Duesseldorf, 1991; B. S. Childs, "Die Bedeutung der hebraeischen Bibel fuer die biblische Theologie", *Theologische Zeitschrift* 48, 1992, 382-390; O. Kaiser, "Die Bedeutung des Alten Testaments fuer Heiden, die manchmal auch Christen sind", *Zeitschrift fuer Theologie und Kirche* 91, 1994, 1-9; E. Zenger, op. cit., 31-56; W. H. Schmidt, "Das Problem des Alten Testaments in der christlichen Theologie: Ein Gespraech mit Herbert Donner", in: M. Weippert/ S. Timm(Hrg.), *Meilenstein. Festgabe fuer H. Donner*,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1995), 243-251; W. H. Schmidt, *Theologische Einsichten des Alten Testaments: Gemeinsamkeiten mit dem christlichen Glauben*, *Evangelische Theologie* 57, 1997, 46-52; F. Cruesemann, "Wie alttestamentlich muss evangelische Theologie sein?" *Evangelische Theologie* 57, 1997, 10-18 등등.

71) 참조. F. Baumgaertel, *Verheissung: Zur Frage des evangelischen Verstaendnisses des Alten Testaments* (Guetersloh, 1952), 51이하.

72) F. Baumgaertel, "Der Dissensus im Verstaendnis des Alten Testaments", *Evangelische Theologie* 14, 1954, 312.

따라서 구약은 우리에게서 이질적인 종교에서 비롯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구약은 기독교 종교와는 다른 자리에서 생긴 것⁷³⁾으로 주장한다. 결국 구약은 기독교의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입장이며, 혹은 일반종교로 취급하면서 하르낙, 볼트만과 함께 말시온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동시에 구약을 부정하지 않는 듯한 주장도 함께 표출하고 있는데, 그의 주장에 의하면 구약은 오직 실존주의적 이해로 우회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증언이다.

이상의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성경관의 중요성을 다시금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어려운 문제는 이들이 구약이나 성경의 많은 부분을 부정하면서도 구약이나 다른 부분들에 관하여 윤리적인 가치를 인정하면서 윤리로 기독교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약의 윤리라고 할 때, 그것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윤리가 아니라 성경을 이용하는 학문적 논리로서의 윤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마. 다른 학자들

구약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입장은 구약학자나 신약학자 즉 성경학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교회사가와 조직신학자 심지어는 실천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볼트만이나 위의 학자들의 직, 간접적인 영향 아래 있는 신약성경학자들의 글에서는 성경관의 문제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필하우어(P. Vielhauer)⁷⁴⁾와 헨센(E. Haenchen)⁷⁵⁾같은 신약학자들은 구약의 근본 진술들은 그 본래의 의도로 본다면 기독교 정경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린다스(B. Lindars)는 구약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

73) F. Baugaertel, "The Hermeneutical Problem of the Old Testament", *B. W. Anderson*, 145.

74) 참조. P. Vielhauer, "Paulus und das Alte Testament", in: *Studien zur Geschichte und Theologie der Reformation*(FS E. Bizer),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69), 33-62.

75) 참조. E. Haenchen, "Das Alte <Neue Testament> und das Neue <Alte Testament>", in: *Die Bibel und Wir*, (Tuebingen, 1968), 13-27.

으며, 구약은 “오직 복음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재촉하는 종으로서만 가치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 그것도 그 길을 인도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⁷⁶⁾라고 평가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또한 유명한 신약학자인 던(J. D. G. Dunn)의 성경관 역시 비슷한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 그는 “구약이 (신약에) 인용된 것은 그것이 의도적인 진술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요약하면 첫 번째 기독교인들은 구약을 독립적인 권위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았고 이보다는 해석된 권위를 가진 것으로서 그 가치를 부여하였다”⁷⁷⁾고 주장하고 있다.

19-20세기에 등장하였던 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신학을 표방하였다. 길게는 17세기의 이성이 인간 판단의 기준이 된 이후의 신학들 혹은 짧게는 슐라이르마허 이후의 학자들의 펜에서는 성경의 권위나 성경의 계시 혹은 성경의 진실성은 거부되고 있다. 그럼에도 기독교를 쉽게 인식할 수 있으면 주장할 수 있는 비결들이 제시되고, 그 가운데 성경해석학이 발전하면서 동시에 성경관에 대한 논의는 오랜 구습으로 만들어 버렸다.⁷⁸⁾ 따라서 구약을 논할 때 기본적으로 문서설에 대한 평가와 인정으로 시작되면서 동시에 구약의 역사마저 외면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흔히 기독교 성경의 첫 번째 부분인 구약은 두 번째 부분인 신약보다는 덜 중요한 책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⁷⁹⁾

그럼에도 윤리학이나 다른 가르침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경이 인용되고 있는 것은 신학의 본질적인 모습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19-20세기 동안 유럽에서는 이러한 성경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신학의 학문성에 관한 논의가 함께 전개된 것도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⁸⁰⁾ 이상에서 보듯이

76) B. Lindars, “The Place of the Old Testament in the Formation of New Testament Theology”, *New Testament Studies* 23, 1976/77, 86.

77) J. D. G. Dunn, *Unity and Diversity in the New Testament*, (London, 1977), 94.

78) 참조. E. Zenger, “Das Erste Testament zwischen Erfuellung und Verheissung”, in: C. Richter/ B. Kranemann(Hrg.), *Christologie der Liturgie: Der Gottesdienst der Kirchechristusbekennntnis und Sinaibund* (Feiburg/ Basel/ Wien: Herder, 1995), 31.

79) J. D. G. Dunn, Chap.4-5. W.G. 킴멜, *신약성서신학*, 박창건 옮김 (서울: 성광문화사, 1989), 23-28.

80) 아래의 책들을 참조할 것. 브레바드 S. 차일즈, *구약 신학*, 박문재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2). 존 골딩게이, *구약해석의 접근방법*, 김의원, 정용성 공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2). D.L. Baker, *구속사적 성경해석학*, 오광만 역 (서울: 엠마오, 1989).

표면에 나타나는 신학적인 주장은 많은 경우에 성경관이 그 중요한 기초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¹⁾

G. F. 하젤, *현대신약신학의 동향, 현대구약신학의 동향*. 월터 카이저, 모이세스 실바, *성경해석학 개론*, 강창헌 번역 (서울: 은성, 1996).

81) 알리스터 맥그래스, *복음주의와 기독교적 지성*, 59-129. 밀라드 J. 에릭슨, *신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미래 신학에 대한 쟁점과 전망*, 김성봉 옮김(서울: 나눔과 섬김, 2002), 139-173.

제 3 장 루터의 성경관

중세의 암흑기를 지나 교회의 전통과 신학을 재정립한 시기가 바로 종교개혁 시대이다. 이 시대 역시 새롭게 전개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증명되고 증거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에 따라 신학과 제도와 전통 등을 재정립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란 사상과 대표적인 신학자인 루터의 성경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Sola Scriptura의 정신

교회의 역사를 고대, 중세, 근세로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인위적인 작업이다.⁸²⁾ 그럼에도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당연한 듯하다. 즉 역사연구에 있어서 역사를 기술하거나 해석하는 학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다들 그렇게 구분하는 것을 상식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은 교회사에도 동일한 용어로 표현되지만, 일반역사와 달리 신학적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다. 그 예로 중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로마제국의 몰락(476년)이나 혹은 그레고리대제(590-604)의 등장을 그 기점으로 삼는다. 일반역사에서는 중세의 몰락을 르네상스와 연결시키며 중세를 암흑기로 규정하지만, 교회사에 있어서는 종교개혁의 시작이 바로 중세의 몰락이다.

일반역사에서 르네상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그와 비교하여 중세를 암흑기로 서술한다. 이러한 판단은 교회사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듯하지만,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의 본질을 잘 분석하면 중세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른

82) 김영재, *기독교 교회사*, 205-209.

근거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교회사에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표지가 흐려진 상태인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성경에 관하여 무지하기 때문이다.⁸³⁾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답을 성경에서 찾고자 애쓰고 노력하였기에 “오직 성경(Sola Scriptura)”라는 것으로 종교개혁 시대의 특징을 잡을 수 있다. 즉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과 신학을 펼쳐야함을 재천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⁸⁴⁾

많은 학자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고 표현하고 더 나아가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온 것으로 말하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천주교와 개신교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연대적으로는 생각하면 위의 언급을 수용할 수 있으나 신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달리 언급해야 할 것이다. 세 종교 모두 성경을 가지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중요한 해석 방법으로 삼고 있는 유대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철저히 율법을 지킬 것인가에 주된 방향을 둔다. 그러나 기독교의 해석에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성을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목적, 성경의 주된 목적을 모르면 서로 비슷한 내용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

83) 교회의 역사를 다룸에 있어서 그 시대구분과 성격 규명은 교회사 수업시간에 제일 먼저 강의되는 내용이다. 교회사적인 시대구분은 언제나 신학적인 이해와 맞물리게 마련이다. 중세를 특히 종교개혁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이 시대적 순서와도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중세를 가장 잘 성격 짓는 사건은 1229년 톨로샤 종교회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종교회의의 결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교회가 교황법으로 금지시켰다는 점이다. 즉 성경 해석권을 오직 교황 이외는 가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성경 절대 권위에서 교황 절대 권위로, 신본중심에서 인본중심으로 잘못 나아갔던 것이 중세의 대표적인 성격이며 신학적인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고 본래의 성경 절대 권위의 중심으로, 신본중심으로 돌아가고자 개혁의 길을 연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며, 그 도화선과 깃발이 된 핵심 모토는 “Sola Scriptura(오직 성경)”인 것이다. 물론 다른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될 수 있으나, 신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근거들은 부차적인 근거이며 따라서 위에서 언급하듯이 다양한 입장의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과 관련된 이러한 분석에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어서, 이러한 근거로 중세를 보며 또한 르네상스에 관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84) 향존하는 교회관을 중심으로 교회사를 다루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심이 잘 드러난다. 이 주제에 관하여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윤태경, “교회사에 고백되어진 향존하는 교회에 관한 연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다. 그리고 가톨릭과 개신교의 관계에서 가톨릭교회의 잘못을 개혁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개신교를 이해하는 부분도 사실은 조심스럽다. 가톨릭을 개신교와 반대되거나 혹은 개신교의 근원으로 여기는 것은 종교개혁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성경이기 때문이다. 개신교의 입장이 가톨릭적 주장과 다르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가톨릭의 주장이라도 성경을 기준으로 일치하면 수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격하는 것이다. 이 원리는 유대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성경과 일치하는 것은 수용하지만 아무리 종교적이고 헌신적이며 전통적이어도 성경에 모순 되는 것은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경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경험도 성경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하고 교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 루터는 신앙생활에 있어 경험의 중요성을 인정했고 강조했으나 개인의 경험을 신앙의 본질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신뢰하기가 종종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복음 선포에 비추어 경험을 서술하고, 해석하며, 변혁시키는 일에 주력해야 함을 더욱 강조한다.⁸⁵⁾ 즉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마저 성경으로부터 점검받고 또한 정리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자세이다.

또한 루터의 생애를 살펴볼 때, 이러한 정신의 발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독일 국민들에게 독일어로 된 성경을 선물한 것으로 평가한다. 즉 가톨릭과 대항하여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모든 판단의 근거를 성경에 두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그의 자세에 있을 것이다.

제 2 절 루터의 이해

성경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루터는 성경은 구전의 말(Rede)로부터 오며 이것

85) 알리스터 맥그래스, *복음주의와 기독교적 지성*, 79-98

때문에 현존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한 가운데로 들어섰으며 필요한 것이지만, 단지 구전 선포의 봉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도구로서만 그러하다고 주장한다. 즉 성경은 사도들의 메시지의 규범이 그 설교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가 이단적으로 변질된다고 하는 위기에 직면하여서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세계는 문서형태로 된 사도 설교의 영속적인 기념물인 성경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⁸⁶⁾

성경의 유일한 내용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 루터 신학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그는 결코 성경의 다양성을 간과하지 않았으며 사도들의 각기 다른 저술상의 특징과 각기 다른 교수방식에 대한 안목을 갖고 있었다. 또한 율법과 역사 그리고 기도와 선포, 예언 등등으로서의 굉장히 풍성한 성경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성경의 본질적 주제와 관련하여 성경이 커다란 통일성도 갖고 있음을 확신하였는데, 이것이 그의 대표적 성경관이다. 그는 성경은 하나의 내용만 갖는다고 주장한다.

루터에게 있어서 이런 성경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이다. 참으로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유일하고 전적인 내용이 그리스도일 경우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물론 이것은 성경이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루터가 보기에 성경의 내용은 율법과 복음인데, 그 율법이라는 것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으며 그를 향하여 질주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라고 한다. 그런 의미로 볼 때 그리스도가 성경의 유일한 내용이요, 그와 같이 이해하면 성경은 하나의 통일성을 이룬다는 것이다.⁸⁷⁾

성경의 내용을 그리스도라고 인식한 루터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성령 가운데서 인간에게 진리로서 보증하며 동시에 성경을 보증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성경을 형성한 교회 자신만이 성경의 권위를 보증한다는 로마 측의 논제에 대하여 이러

86) 파울 알트하우스, *마르틴루터의 신학*, 구영철 옮김(서울: 성광문화사, 1994), 111-112

87) 베른하르트 로제, *루터연구입문*, 이형기 옮김(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215. 루터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 즉 성경 전체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정향되어져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성경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빼보라. 그러면 당신은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겠는가? 전 성경은 어디서나 오로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한 성경의 자기 인증 혹은 자기 증명으로써 응수한다. 그는 성경이 왕이므로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성경의 대가와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단지 단순한 증인과 학생 그리고 고백자가 되어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⁸⁸⁾ 다시 말해 어느 누구도 성경을 공인할 수 없으며 성경이 자기 자신을 공인한다는 것이다. 또 성경에 대한 교회의 증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기 자신에 관하여 주는 증거에 대해 복종하는 승인 이외에 다른 무엇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그것을 판단하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심판대가 아니라 단지 그 밑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교회가 성경을 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성경이 교회를 공인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성경의 자기 해석과 관련하여 루터는 모든 책에 있어서 그 책들이 저자의 정신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규칙이라면 성경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성경이 참으로 최종적인 권위와 최고의 재판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해석의 기준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외부로부터 취하여 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배제한다. 성경이 자기 자신을 해석할 경우에만 가장 논란이 없고 확실한 것이며 멋진 것이라고 말한다. 성경의 자기해석과 성령을 통한 해석은 루터에게 매 한가지다.

루터는 성경이 자기 자신을 해석한다는 원칙으로써 당시 로마교회와 열광주의자들에게 대응했다. 로마교회는 성령이 약속되어 있다는 교회 직분을 통하여, 열광주의자들은 성경과는 상관없이 각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영적 은사를 통하여 공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루터는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바 그 영은 성경 자체를 통하여 그들에게 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성경이 자기 자신을 해석한다는 원칙은 성경을 단순한 어의(語義)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규칙을 내포한다고 말한다. 즉 성경은 어디서나 하나

88) 이에 대한 루터의 직접적인 언급은 다음과 같다. “이 왕이 지배하여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에게 복종하고 종속하여야 한다. 교황이든 루터든, 어거스틴이든 바울이든 그리고 하늘에서 온 천사든지 간에, 그들은 그의 대가와 심판관 혹은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리어 단순한 증인과 학생 그리고 고백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파울 알트하우스, *마르틴루터의 신학*, 115.

이며 동일한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⁸⁹⁾

루터의 성경관은 성경해석의 문제로 나아간다. 그는 누구나 자기 자신의 정신을 말씀에 집어넣을 수 있는 “영적인” 해석은 성경의 명확성을 상실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성경의 자기 해석은, 성경이 자기 자체에 있어서 명료하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한다고 주장한다. 즉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서 이해할 수 있으며, 각 사람은 모두가 자신을 위한 주석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대조적으로 성경이 교회의 교직(敎職)을 통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로마의 전제는 성경이 불명료하다고 하는 것으로써 근거지어 졌음을 알았다. 그래서 이것과 논쟁을 벌여야 했던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어두워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성경을 마음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성경의 명료성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사람의 마음에 주어진다. 즉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증거가 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으며 성경을 명확히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⁹⁰⁾

루터는 때에 따라서 성경 전승에 대한 역사비판을 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성적, 과학적 척도로 행하여진 근, 현대의 역사비판과는 다르다. 그는 정경 각 부분에 대한 정경 내에서의 신학적 비판을 가하였다. 이 비판의 척도는 그리스도, 값 없는 은총의 복음과 오로지 신앙으로 말미암은 칭의의 복음, 또는 “사도적인 것”⁹¹⁾이다. 그는 이런 척도 혹은 기준을 가지고서 정경의 책들을 평가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시금석이며,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가르치는 것만이 사도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와 요한일서 그리고

89) 중세의 전통적인 성경해석에서는 성경 가운데 4중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즉 성경은 문자적으로, 비유적으로, 유추적으로, 그리고 또한 풍유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루터는 이와 같은 의미상의 분류를 거부했다. 그에게 있어서 성경은 오직 하나의 본래적이고 정확한 의미, 곧 문법적 혹은 역사적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벵트 헤그룬트, *신학사*, 307.

90) 성경에 대한 성령의 내적 증거와 관련한 루터의 언급들은 다음을 참조하라. 헤롤드 린젤, *성경에 관한 논쟁*, 73-77. 그리고 파울 알트하우스, *마르틴 루터의 신학*, 65-74, 116-120. 벵트 헤그룬트, *신학사*, 308. 그리고 김영재, *기독교 교회사*, 439-440.

91) 루터에게 있어 “사도적”이란 개념은 하나의 역사적인 발족점을 의미한다. 사도는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명료하게 선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입증된다. 이 가운데서 사도는 성령에 의하여 영감 받은 자로 입증되며, 이 가운데서 그는 권위와 무오성을 지닌다. 파울 알트하우스, *마르틴 루터의 신학*, 124-125.

바울 서신들, 무엇보다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등을 신약의 올바르고 가장 고귀한 책들이요, 모든 책들 중에서 참된 알맹이와 골수라고 주장한다. 반면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히브리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책으로 평가하였다.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논점이 아닌 곳에서는 전통에 있어서와 같이 그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디서나 성령이 집필한 책이며 그 자체로서 무오한 권위를 가진다고 말한다. 따라서 성경에 대한 그의 비판은 엄격하게 제한된 비판임을 알 수 있다.

루터에게 있어서 구약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는 특별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차이점과 통일성이다.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다.⁹³⁾ 그는 구약이 주로 율법과 위협과 관계를 맺고 있듯이 신약은 주로 약속과 장려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 즉 구약의 내용은 주로 율법을 가르치고 죄를 보여주는 것과는 선한 일을 장려하는 것이고, 신약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통한 은총과 평화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며 하나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구약이 복음을 내포하는 한 성경의 두 부분 사이에는 하나의 통일성-구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구원이 예언되었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성취된 것으로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차이점만 제외하고는-이 존재한

92) 그는 참된 장부(帳簿)들에 관하여 거론하는 가운데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야고보서에 대해 “그는 행위 없이 신앙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그 일에는 너무나 약했고, 사도들이 사랑에의 장려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을 율법 추구하고 더불어 수행하려고 한다.”고 평가를 내린다. 히브리서에 대해서도 그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관한 증거와 구약해석 때문에 찬양을 하지만 금과 은과 귀한 돌 사이로 어느 정도 나무와 짚이나 풀이 뒤섞였다며 사도 서신들과의 거리를 강조한다. 또 그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이 책이 성령에 의하여 쓰여졌는가, 즉 영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도저히 느낄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는 유다서와 함께 이들 성경을 그의 성경 마지막에 배치했고 그것들은 신약의 참되고 확실한 주요 서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김영재, *기독교 교회사*, 439.

93) 이에 대해 맥그래스는 루터의 저술에는 구약의 하나님을 율법의 개념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으로, 신약의 하나님은 세상을 구속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다르게 말했던 2세기 마르시온의 사상이 희미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루터가 구약과 신약이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행동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율법과 은총의 전적인 대립을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즉 루터가 구약은 주로 율법의 종교이고 은총에 대한 신약의 강조와 대조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는 것이다. 참조. 알리스터 맥그래스, *역사 속의 신학*, 261-264. 또한 이에 대해서는 로제의 *루터연구입문*, 216-218을 참조하라.

다고 말한다. 즉 양자는 약속과 성취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구약이 복음을 자체에 지니고 있는 한, 즉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다는 면에서 그것을 그리스도에 관한 책으로 본다. 구약이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한다는 것은 첫째, 구약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즉 율법으로 있다는 의미요, 둘째, 구약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데 즉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약속과 사전 형태로서 가득 차 있다는 의미에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을 떠나면 구약은 이스라엘의 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과 이스라엘 역사를 제공할 뿐이다. 결국 루터에게 있어 구약은 한 책에 들어있는 두 책인 것이다. 두 가지의 관점이 완전히 상이한데 이에 따라 구약에 대한 루터의 입장도 상이하게 달라지는 것이다.⁹⁴⁾

루터가 제도적인 교회와 교의를 규범으로 여김으로써 성경을 상대화한 로마가톨릭에 대항하여 성경만이 우리의 삶을 위한 규범이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높인 점은 큰 공로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경과 본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한 점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켰다는 비평을 듣는다.⁹⁵⁾ 루터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한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구속 사역이라고 하며, 구약의 율법 역시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복음 중심의 성경 해석과 ‘오직 은혜로’와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하면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히브리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책으로 평가하게 된 것이다. 루터가 구약과 신약에 대해 율법과 복음으로 본 것을 후에 독일학자들은 아예 이원화하는 것을 본다. 대표적으로 볼트만은 구약을 신약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여겼다.

성경을 설명함에 있어서 루터는 복음과 율법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를 통하여

94) 파울 알트하우스, *마르틴 루터의 신학*, 136-147

95) 이에 대해 로제는 루터가 하나님과 성경의 관계를 세 가지 방법으로 기술하였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한다. 첫째, 루터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는가 하면, 둘째, 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진정한 내용이라고 서술한다. 그러나 그는 이 내용을 우리가 그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외적인 형태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셋째, 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주로, 성경을 피조물로서 기술함으로써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차별화되는 변증법적인 관계를 묘사한다는 것이다. 참조. 베른하르트 로제, *루터연구입문*, 214-215.

분명하게 전개하고 있지만, 그 이후의 신학자들은 루터의 고민과는 다른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더 나아가면서 구약을 신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제 4 장 칼빈의 성경관

종교개혁의 정신과 신학 그리고 개혁주의의 신학을 바로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칼빈의 신학과 정신을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이다. 그럼에도 칼빈의 전체적인 작품을 다루기보다는 연구범위를 기독교 강요와 칼빈의 성경관에 대하여 언급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글들 가운데 중요한 표현을 통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장은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준비로서 간략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1 절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성경관

칼빈의 성경론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 제1권의 6-10장에서 거론되어지고 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를 논하는 가운데 곧 바로 성경론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저자의 의도는 ‘성경’에서라고 대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1권의 6-10장에 진술된 그의 성경관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 6장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오기 위한 길잡이와 교사로서 성경이 필요하다.⁹⁶⁾

여기서 칼빈은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에게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주셨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올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 또 자신을 알려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른 더 훌륭한 조력자로서 친히 그의 말씀의 빛을 더하여 주었다고 말한다. 또한 칼빈은 여기서

96) 칼빈, *기독교강요* 제1권, 139-146.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하여 언급한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직접 말씀이나 환상 등을 통해 인간들에게 교훈을 가르치셨으나 종래에는 교리가 교훈을 통하여 대대토록 계승됨으로써 진리가 모든 세대를 통하여 세상에 존속되게 하기 위하여 공공연히 서판에 기록되기를 즐겨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점에 관하여 하나님이 깊은 배려를 가지고 섭리하고 계신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성경 없이는 인간 모두는 오류에 빠진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관하여 진지한 명상을 하기로 진심으로 동경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다시 반복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한 계시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해 준다고 말한다. 인간의 마음이란 약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도움과 뒷받침이 없는 한 도저히 하나님께 올 수가 없다고 단언한다.

제 7장 성경의 절대 권위를 확신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 그것이 곧 성령이다. 성경의 신빙성을 교회의 결정에 좌우된다는 것은 불경된 죄이다.⁹⁷⁾

7장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언급이다.⁹⁸⁾ 칼빈은 여기에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기인되는 것이지 사람이나 교회에 의해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성경이 교회의 승인을 얻을 때에 한하여서만 그 중요성을 지닌다는 당시 가톨릭 교회의 주장에 대해 더 이상 파괴적일 수 없을 만큼 악한 오류요, 거룩한 성령을 모독하는 오만불손이라고 말한다. 칼빈은 교회는 어디까지나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설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엡2: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는 말씀을 인용한다. 즉 바울에 의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 즉 성경이 교회의 터라는 것이다. 이는 교회가 있기 전에 분명히 성경에 대한 권위가 선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만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증하여 경건의 의무로 보아 이를 주저 없이 받아들여 존귀히 여겼을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또한 칼빈은 성경을 증명하는 것은 성령이라면서 이것은 모든 증거 중 제일 강력한 증거라고

97) 칼빈, *기독교강요* 제 1권, 147-158.

98) 벨코프, *조직신학(상)*, 175-176.

주장한다. 하나님만이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한 바른 증인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말씀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인쳐지기 전에는 인간들의 마음 속에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고 그는 말한다. 또한 칼빈은 성경은 그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한다고 말한다.

제 8장 성경의 신빙성은 인간 이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증명된다.⁹⁹⁾

여기서 칼빈은 성경에 관한 구약, 신약의 일반적 증거를 들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 지혜를 초월하는 성경 내용의 탁월성, 즉 하나님의 지혜의 배치에 있어서의 매우 질서정연함, 그 존엄성, 그 진리, 단순성, 그 효능 그리고 그 문체보다 내용이 결정임을 이야기한다. 또한 모세 5경에 나타난 이적들과 예언, 구약 선지자들의 말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성경의 신빙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신약 성경의 단순성, 신적 성격 및 권위에 관하여 말한다. 공관복음 저자들의 조화와 선미한 문체, 요한 바울 베드로의 권위, 바울의 회개 전향 등을 신약 성경의 특별한 증거들로 들고 있다. 또한 교회가 진리를 받고 보수한 사실, 진리 자체의 무적의 힘, 경건한 성도들이 일치하여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 사실들, 순교자들을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증거들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유만으로는 성경의 신빙성을 확고하게 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말한다. 성경에 의하여 하나님을 구주로서 아는 구원적 지식에까지 이르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내적 설득 위에 확실성이 확립이 될 때에야 충분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있는 후에야 이를 확증하기 위한 인간들의 증언들도 제2차적인 수단들로 유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 9장 광신자들은 성경을 배척하고 직접적 계시를 무시하고 모든 경건의 원리를 전복하려고 한다.¹⁰⁰⁾

성경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99) 칼빈, *기독교강요* 제 1권, 159-175.

100) 칼빈, *기독교강요* 제 1권, 176-181.

광신자들이다. 그들은 마치 성령의 가르침을 직접 받는 것처럼 자랑하면서 성경 읽는 것을 전적으로 멸시하는 한편 자기들이 받는 성령의 직접계시에 비하면 성경은 죽은 문자요 또 죽이는 문자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이사야는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사59:21)고 전하며 교회가 성령의 통치 아래 있으며 교회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깨우치며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딤후3:16,17)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 읽는 일에 착념하라고 권면하고 성경이야말로 구원을 줄 뿐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책이라 전한다.¹⁰¹⁾

칼빈은 어떠한 영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제쳐 놓고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면 그것이야말로 허망하고 거짓된 것으로 의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과 악령을 구분할 수 없다고 말한다. 성령은 절대로 성경을 떠나지 않는다.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시고 오직 자신이 만든 성경에 의해 확인되고 인정된다. 결국 칼빈은 성령과 성경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말한다.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써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시19:7) 생명의 말씀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의 증거에 의하여 확증이 될 때 성도는 그 말씀 자체에 대한 확실성을 명확하게 가질 수 있다. 이처럼 성경과 성령의 확실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01) 비교. 벨코프, *조직신학(상)*, 177-178의 “성경의 필요성”을 보라.

제 2 절 칼빈의 신학적 근거

여기서는 칼빈의 성경관-주로 성경의 신빙성과 영감-과 관련하여 일반적 서론 측면에서 간단히 고찰하는 가운데 그의 신학적 근거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칼빈의 성경관 이해와 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독교 인문주의자로서 받은 훈련과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⁰²⁾ 그는 성경을 인간이 지은 책으로 보고 저자의 관심에 맞추어 연구했으며 문학비평에 혼한 방법들을 사용했다. 여기에 그의 인문주의적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칼빈은 단순한 인간의 작품으로서의 성경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비평 연구의 동기는 원본과 번역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깊고 강력한 욕구에서 나왔던 것이다. 인문주의자들이 인간에 관한 새로운 지혜를 얻기 위해 고전 저자들에게로 회귀한 것같이 칼빈은 다른 개혁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 성경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 성경은 교회의 교화를 위해 이야기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위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사실은 그가 성경의 기자들을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가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세부 문제들을 기꺼이 인정한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는 복음서 기자들이 세세한 문제에 있어서 많은 곳이 서로 다름을 확인하면서도 기사나 비유의 요점에 있어서는 의견을 같이한다고 주장한다.¹⁰³⁾

칼빈은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판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성경문학 배후에는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음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오늘날은 성경 속의 모순점들이 기록 연대, 저자, 문장 구성 때문임을 모두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당시 칼빈

102) 도널드 매깅 편저, *칼빈신학의 이해*, 이종태 옮김(서울: 생명의말씀사, 2001), 53-61.

103) 조셉 하로투니언, *칼빈주석의 정수*, 이종태 옮김(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28. 일례로 부활 사건시 천사와 여인들의 숫자 문제에 대해 그는 저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무관심했다고 지적하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복음이나 율법으로 유도한다. 실제로 그는 모세의 설명(민25:9)과 바울의 설명 사이의 수많은 모순들을, 성경 기자들은 고대 로마인들처럼 세부 숫자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무시해버린다고(고전10:8). 중요한 것은 세부사항의 사실적 정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및 약속과 관련한 성경의 신빙성이었다.

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성령의 무오성을 인정하고 인간 지성의 다양성을 아는 칼빈은 모순되는 진술을 조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이 실패하는 곳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게 하신 성령의 의도가 성취되었으며 교회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올바르게 받아지고 기록된 것으로 만족했다. 칼빈은 실제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술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러한 구술은 성경의 권위를 세우기보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교회를 세우고 특정 상황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을 주려는 것이었다.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며 따라서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각자의 처지에 따라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¹⁰⁴⁾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의 권위는 그리스도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자신을 나타내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인 것이다. 또한 성경 기자들의 영감은 그것을 읽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안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칼빈은 영감론을 사용하여 로마교회를 공박한다.¹⁰⁵⁾ 성경은 교황제도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인간의 말과는 대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한다. 칼빈의 주장은 성령께서는 교황이나 로마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그는 교부들은 그릇될 수 있었고 또 종종 그랬지만, 이 모든 것과는 달리 성경은 그릇될 수도 없었고 또 그릇된 적도 없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교부들이나 교회회의 또는 일반 전통이 성경과 배치될 때는, 성경이 옳고 나머지는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루터와 마찬가지로 칼빈에게도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증거, 그리스도 자신의 사역 및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성경기자의 영감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곳이 바로 여기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영감에

104) 필자에 의한 강조. Ibid., 30.

105) 칼빈, *기독교강요* 제1권 7장.

근거하며 동시에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 근거한다. **성령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셨다!**¹⁰⁶⁾ 그런데 성령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실 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로마교회는 복음을 변질시켰다. 순수한 복음은 성경에 있다. 이 복음의 순수성은 성령이 하신 일인데 그는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듯 성경 기자들에게 복음을 구술하셨던 것이다.

106) 필자에 의한 강조.

제 5 장 벨직신앙고백의 성경관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신앙고백 중의 하나인 벨직신앙고백서에서 나타난 성경에 대한 분석이다.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당시의 관심과 주제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그 주제가 오늘날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다룬다. 그리고 현대 성경신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외경과 위경에 관하여 본 신앙고백서는 어떻게 표명하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제 1 절 시대적 배경과 구성

벨직신앙고백서는 총 37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신론 혹은 삼위일체론, 성경론, 교회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학의 실제적인 적용으로 국가관에 관한 것이다.¹⁰⁷⁾

모든 신앙고백의 제1장은 전체 신앙고백의 성격과 관련하여 중요한 안목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성격을 가장 잘 규명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제1번이 성경에 관한 것이며, 동시에 대소요리문답 1번 역시 중요한 가르침이란 사실은 널리 주지하는 바이다. 또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시작하며 강요를 펼쳐나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벨직신앙고백서는 제1장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헤르만 바빙크가 하나님의 큰일에서 고백하듯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은 전체 기독교의 핵심이요 총체이다. 그것 없이는 창조는 물론 구속, 거룩하게 하심이 보존될 수 없

107) 필립 샤프, 신조학, 박일민 편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171-173. 박일민, 개혁교회의 신조(서울: 성광문화사, 1998), 289-327. 김의환 편역, 개혁주의 신앙고백집(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173-206.

다”¹⁰⁸⁾ 라고 하듯이 삼위 하나님의 활동을 기초로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요청하며 삼위일체를 벨직신앙고백서에서는 제일 첫 장에 소개하고 있다. 삼위일체를 논함에 있어서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인격체로서, 각자의 구별된 특성으로 구분이 되어지심에도, 이 세 인격체가 오직 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여, 그 전체적인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이 삼위의 직분과 사역이 각각 독특함을 안다. 즉 성부께서는 창조주로서, 성자께서는 우리의 구주와 구속주로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결케 하는 영으로서 불려진다.” 라고 고백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는 사변적인 사색이 아닌 철저하게 성경신앙의 정신에 머물러서 이해해야 하는 방식임을 못 박고 있다. 그리고 모든 논의의 근거를 성경에 둔다.¹⁰⁹⁾ 따라서 그 근거가 되는 성경관이 이어서 다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순서일 것이다.

성경론은 2장부터 7장까지에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제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2 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지시는 수단”, 제 3 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제 4 장 “성경의 정경”, 제 5 장 “성경의 위엄과 권위의 근원”, 제 6 장 “정경과 외경의 차이점”, 제 7 장 “믿음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의 충족성”. 벨직신앙고백서에서는 성경을 설명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언급한다. 또한 우주가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기록하신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더 확실하게 알려 주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을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것임을 천명한다. 따라서 기록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영광과 구원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7장은 “유일한 신앙의 규범으로서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제목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내용은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고, 인간이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충분히 지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

108) 헤르만 바빙크, *하나님의 큰일*, 163.

109) 박일민, 294-295.

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규범으로서 충분하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 외에 무엇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는 것을 금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8)라고 표현하고 있다. 결국 이런 정신에 기초해서 개혁신앙의 성경관은 성경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함께 할 수 없음과 성경만이 유일한 근거임을 분명하게 못 박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¹⁰⁾

이러한 구성을 분석하면 단지 자신의 시대에 국한되어서 정립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개혁교회가 늘 그렇게 해 왔듯이 철저하게 사도적인 전통을 따라서 제시된 것임을 보여주며, 바로 그런 것이 신앙고백임을 보여준다.

제 2 절 고백문의 분석과 의미¹¹¹⁾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성경에 대한 조항은 1장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에 이어 곧 바로 2장부터 시작된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설명의 근거로 성경관이 이어서 다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성경관은 2장부터 7장까지에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제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2 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지시는 수단”, 제 3 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제 4 장 “성경의 정경”, 제 5 장 “성경의 위엄과 권위의 근원”, 제 6 장 “정경과 외경의 차이점”, 제 7 장 “믿음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의 충족성”. 이제 성경에 관하여 언급한 벨직신앙고백문 전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석과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1. 계시

110) 이장식, *기독교 신조사* 1권, 246. 박일민, 289-292.

111) 이 단원은 김성봉 교수의 벨직신앙고백 강의(<http://www.sbpcc.co.kr>)를 듣고 참조했음을 밝혀둔다.

제 2 장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가?

인간은 하나님을 두 가지 방법으로 알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하신 만물을 보전하시며, 운영하시는 법칙과, 우주의 웅장하고 오묘함을 바라 볼 때, 마치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책¹¹²⁾을 보면서 하나님의 본성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 책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작은 피조물을 통하여 흘러나옴을 배웁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의 육안으로는 충분히 식별할 수 없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거룩하신 신성을 믿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0절에 이 사실을 간증했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하고 완전무결한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변명을 할 수 없게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인 거룩하고 신성한 성경¹¹³⁾을 통하여 더 분명하고 우리 삶에 충분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¹¹⁴⁾

여기 벨직 신앙고백 2장은 계시에 대한 것이다.¹¹⁵⁾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는 방법으로 창조세계와 성경을 말하고 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라고 말한다. 본 고백문은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가장 훌륭한 책’과 같다고 언급한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은 이 창조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고백문은 이 주장의 근거로 로마서 1:20절을 명시하고 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변명을 할 수 없게 한다고 말한다. 결국 이 신앙고백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일반계시의 필요성 내지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⁶⁾

그러나 이 고백문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창조세계만이 아니라 다른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본 고백문은 “그의

112) 시19:1. 칼빈 *성경주석*(성서교재간행사) 시편, 473-474. 피터 크레이기, *WBC주석* 시편(상), 242-243.

113) 시19:7. 칼빈, *시편주석*, 481-482. 고전2:9-10. 칼빈, *고린도주석*, 92-95. 뵤전1:10-11

114) 고전1:18, 21 칼빈, *고린도전서주석*, 66, 71-73, 롬1:16

115) 비교. 벨코프, *조직신학*(상), 126-154.

116)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 개요*, 43-63.

말씀인 거룩하고 신성한 성경을 통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고백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하여 창조세계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더구나 우리 삶에 충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일반계시만으로 하나님을 보다 분명하게 또 충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⁷⁾ 여기에 일반계시의 불완전함과 한계가 있고 동시에 특별계시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고백문이 말하는 대로 창조세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하고 신성한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본성 내지 속성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충분한 하나님의 뜻까지 알 수 있다. 그 뜻에 대해 본 고백문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요, 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고백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고전1:18-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는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참 진리를 말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롬1:16).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렇듯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인생들을 향한 구

117) 이와 관련하여 벨코프는 일반 계시를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로 3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로, 일반 계시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인간에게 알려 주지 못한다고 한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구속 사역 및 변화시키는 능력을 배워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하나님 및 영적인 것들에 대해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지식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로, 그것은 종교를 위해 충분한 토대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황폐시키는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연에서의 하나님의 계시는 흐려지고 오염되었으며, 인간은 그것을 올바르게 읽는 능력을 빼앗겨 버렸다고 말한다. 벨코프, *조직신학 상*, 143.

원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심령이 아니고는 결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고전 2:2-10절은 “기록된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라고 말씀한다.

2. 하나님의 말씀

제 3 장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충동에 의하여 온 것이 아니며, 사도 베드로가 말하듯이 성령에 의하여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벧후 1:21). 우리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의 특별하신 계획¹¹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같은 그의 종들에게 그가 계시하신 말씀을 쓰도록 명령하셨으며¹¹⁹⁾, 그 자신이 친히 그 자신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판을 쓰셨습니다.¹²⁰⁾ 그런고로 그러한 글들을 우리는 거룩하고 신성한 책, 성경(holy and divine Scriptures)이라고 부릅니다.

벨직 신앙고백 3장은 성경의 신적 영감과 보증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본 고백문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사람의 충동에 의하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 근거로 직접 베드로후서 1:21을 거론하고 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서 예언은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밝힌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고백문은 이에 대해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같은 그의 종들에게 그가 계시하신 말씀을 쓰도록 명령하셨고 또한 그 자신이 친히 기록하셨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성경의 근거는 무

118) 시102:18 칼빈, *시편 주석*, 221-222, 절37:24-28

119) 출17:14; 34:27 칼빈, *출애굽기 주석*, 279-280

120) 신5:22 두에인 L. 크리스텐센, *WBC 신명기 주석*, 339-340; 출31:18. 칼빈, *출애굽기 주석* 321-322.

엇인가? 출애굽기 17:1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같은 증거를 출34:27절에서도 본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경을 쓰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을 가르친다. 또 하나님이 직접 두 손가락으로 두 석판에 법을 쓰셨다는 것은 십계명을 주신 사실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셨음을 뜻한다. 신명기 5:22절은 이렇게 증거한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또 출애굽기 31:18절도 이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얼른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이 다른 말씀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셨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딤후3:16절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고백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쓰도록 명령하여 기록된 것이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권능으로 기록한 십계명이든 그 모든 것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고백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또한 ‘거룩하고 신성한 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벨직신앙고백은 성경이 신적으로 영감되고 보증된 것으로 고백한다.¹²¹⁾

또 고백문은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여 남기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특별한 계획 때문이라고 밝힌다. 이에 대한 성경의 근거는 시편 102:18절 말씀이다. “이 일을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장래 세대는 후대를 가리키고, ‘창조함을 받을 백성’은 전 인류를 말함이 아니라 새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한다.

121) 비교. 벨코프, *조직신학(상)*, 155-181.

3. 성경 66권

제 4 장 정경으로 인정된 성경책¹²²⁾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된 성경이 구약(39권)과 신약(27권)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말씀은 절대적으로 권위가 있으며,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도 변경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과 하, 열왕기상과 하, 역대상과 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상 39권을 구약성경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과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과 후서, 디모데전과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과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상 27권을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상의 책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수록임을 믿습니다.

구약의 처음 다섯 권을 모세의 5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그 저자가 모세라고(신 31:9)¹²³⁾ 믿고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서 살던 역사의 기록입니다. 에스라는 볼게이트(Vulgates) 성경에 2, 3, 4권이 있지만, 제 1권만이 66권 중에 편입되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의 네 권을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나머지 12권을 (호세아부터 말라기) 소선지서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먼저 고백문은 정경으로 인정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합 66권만이 하나님 말씀으로 절대적 권위가 있고,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도 변경할 수 없음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그 목록을 명시한 후 다시 한번 반복하기를, “이상의 책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수록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여기서 ‘이상의 책들만이’라고 강조한 것은 본 고백문에서 명시한 신구약 66권의 성경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가톨릭교회가 성경 외에 다른 것, 소위 외경을 마치 성경인양 끼워 넣어서 성경과 같은 권위로 이야

122) 비교. 나용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13-15.

123)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기하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진리는 부패되고 말씀에는 큰 혼돈을 초래하게 되어, 개혁자들은 바로 이 면을 고백하며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성경처럼 그 힘과 권위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¹²⁴⁾ 그렇기에 본 고백문의 맨 첫 부분에서 정경으로 인정된 66권의 성경만이 절대적으로 권위가 있으며,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도 변경할 수 없다고 단호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본래는 성경이라고 하면, 책들(Scriptures)이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면 성경전서(聖經全書)라고 하여 66권의 책들의 모음이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가급적 신구약 성경전체를 지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¹²⁵⁾

124) 당시 가톨릭은 성경-제물의 불가타역 성경에 수록된 외경들을 포함하여 성서로 인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두고 당시 가톨릭교회는 그것이 외경 마카비서에 근거된 것이라 하여 정당화하였고, 개혁신교회는 그것이 정경이 아닌 외경에 지나지 않음으로 정당한 교리가 되지 못한다고 맞섰다.

125) 사실 신약만 들고 다니면 편하기는 하겠으나, 잘못하면 현대신학의 영향을 받아 구약을 은연중에 포기하거나 무시하는 결과를 방조하게 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 변질 중의 하나가 포켓성경이라고 하여 신약에다 억지로 시편을 하나 더 첨가하여 마치 성경인양 생각하는데, 조심해야 할 것이다. 신약성경만 들고 다니면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마치 구약 성경만 들고 다니는 유대인들이 있듯이 신약성경만 들고 다니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인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의 역사 속에는 신약만 들고 다녔던 이단들이 있었다. 구약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말았다. 이런 경향은 역사 속에만 존재하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날에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면 현재, 아니 19-20세기의 독일로부터 나오는 대부분의 신학에서는 이런 경향이 분명하게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교회사의 대가로 언급하는 Adolf von Harnack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기본 자세는 구약을 이스라엘의 책 혹은 이스라엘의 종교사로 취급하고 만다. 구약과 신약을 율법과 복음이라는 도식으로 나누고 구약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 종교 즉 엄격하고 율법적인 유대교를 버리고,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라고 하면서, 사실상 신약만 가지고 있다. 현재의 볼트만 학파 역시 그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리의 현실정과 관련하여 생각하자면, 비록 그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신약이라도 군인들이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군대에서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것, 그 자체는 분명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간략하고 명쾌한 신약의 말씀에다가 묵상하기 좋은 시편을 첨부하여 간편한 성경으로 만든 것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며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손에 신구약성경 전체 즉 성경전서가 주어져 있음을 감사하며 더 나아가 자랑스럽게 여기며 지니고 다니고 읽으며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다.

4. 성경의 권위

제 5 장 성경의 권위

우리는 이 모든 책들이 그리고 이 책들만이 우리 믿음의 규칙과 기초와 확증에 있어서 기록하고 경전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데, 이는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증거하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증거하시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들이 그 자체 안에 그것들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조차도 그 안에 예언된 것들이 성취되고 있다고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고백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신성과 권위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본 고백문은 다시 한번 고백문 4장의 내용을 반복하여 “우리는 이 모든 책들이 그리고 이 책들만이 우리 믿음의 규칙과 기초와 확증에 있어서 기록하고 경전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받습니다”라고 고백한다. 다시 한번 ‘이 책들만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당시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킨 가톨릭교회 성경관과 뚜렷이 구별되는 개혁신학의 분명한 성경관을 천명하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다. 그래서 모든 책들이 그리고 이 책들만이, 우리 믿음의 규칙 그리고 우리 믿음의 기초 또한 우리 믿음의 확증에 있어서 기록하고 경전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믿는다고 고백한다.

또 본 고백문은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전부 의심 없이 믿습니다. 믿는 이유는 교회가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한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와 관련되어 당시 가톨릭교회에서 통용되던 신학적 논리요 주장을 염두에 둔 고백이다. 당대의 교회에서는 교회가 성경이라고 정하였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으로 말한다. 즉 교회가 성경이라고 정하지 않으면 성경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사실상 최종적인 권위를 교회임을 말한다. 비록 자신들의 신학에서는 분명히 성경과 전통(교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성경보다 전통 즉 교회가 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사실 교회는 성서의 정경에 권위를 인정했지만 교회의 권위를 성서에 이전시킨 것은 아니다. 성서의 권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교회는 교

회가 창출해내지 않은 권위를 승인할 뿐이었다.¹²⁶⁾ 그들은 권위 자체와 권위 인정을 혼동했다. 이런 주장에 대응하여 개혁교회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으로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회가 정하였기 때문에 성경 아닌 것이 성경이 되거나 성경일 수 있던 것이 성경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인생들에게 주어질 때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다. 또한 성도가 그 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느껴진다. 벨직신앙고백은 당시 가톨릭교회의 주장에 반하여 성경 권위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를 성령께서 친히 증거 하심이라고 제시한다.¹²⁷⁾ 성령께서 어떻게 증거하시는가? 각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감동을 주며 증거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성경 권위의 근거가 성령의 증거임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 살전 2:13¹²⁸⁾이 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

126) 이와 동일한 입장에서 버스웰은 정경성은 교회의 인정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한다. 성경의 여러 책들은 쓰여졌을 때 정경적이었던 것이다. 4세기 말엽이 되어서야 교회 회의는 형식적인 책의 목록을 제시했는데, 이는 이미 기독교 공동체에 의하여 인정된 책들을 사실적으로 선언한 것일 뿐이라고 한다. 참조. 올리버 버스웰, *조직신학* 1권, 권문상, 박찬호 옮김(서울: 웨스트민스터출판부, 2005), 302-305.

또한 바빙크도 교회가 정경을 만들었다거나 교회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록들에 정경의 권위를 부여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성경은 기록된 순간부터 즉시 교회에서 권위를 지니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 믿음과 생활의 규범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 권위는 사람에게서나 신자들의 권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권위를 부여하시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참조.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개요*, 108-132.

장두만도 그의 책에서 “엄밀히 말하면, 어떤 책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면 바로 그 순간 정경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경의 결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인간이 하는 일은 정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 결정을 발견하는 것이다. 어떤 책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이 요구되었던 것이다”라고 말한다. 참조. 장두만,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서울: 요단출판사, 1987), 138-144.

127) 이와 관련하여 칼빈은 성경의 권위를 증명하는 모든 증거 가운데 제일 강력한 증거는 성령이라고 말한다. 하나님만이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한 바른 증인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인쳐지기 전에는 인간들의 마음에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참조. 칼빈, *기독교강요* 제 1권, 147-158.

올리버 버스웰도 그의 책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제 1장, 특별히 4와 5항에 근거하여 성경의 최종적이고 결론적인 증거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성령”이라고 강조한다. 참조. 올리버 버스웰, *조직신학* 1권, 307-309.

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즉 자신의 설교를 듣거나 편지를 받아 읽을 때에 그 자세가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증거한다. 그들로 하여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렇게 느껴지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교훈이 여기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¹²⁹⁾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하는 표현, 바로 이것이 성경의 권위임을 밝힌다.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12:3)에서 “하나님의 영으로”하는 이 말씀이 성경의 권위를 말하고 있다. 또한 요일 4:6, 5:7도 각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하여 성령의 증거로 인한 성경의 권위를 말하고 있다.

또한 본 고백문은 성경의 권위를 믿는 것은 “또한 그것들이 그 자체 안에 그것들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한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 안에 있는 증거, 즉 성경 전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자체 안의 조화와 통일성 그리고 예언과 성취로 구성된 것이 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는 고백이다.¹³⁰⁾

128)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칼빈, *테살로니가 주석*, 432-433. F.F.부르스, *WBC주석*, 112-114.

129)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칼빈, *디모데후서 주석*, 593-595.

130) 성경의 자증(自證)과 관련하여 바빙크는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매우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4가지 근거를 든다. 첫째로,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입으로 선포하라고 명하기도 하시지만, 또한 그 계시를 기록할 것을 자주 명하신 것, 둘째로, 모세와 선지자들 스스로 그들이 말씀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글로써도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 셋째로, 신약 성경의 증거, 즉 예수와 사도들이 모세와 이사야와 다윗과 다니엘 등을 통해서 주어진 구약 성의 말씀들을 거듭거듭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 넷째,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비록 예수께서 친히 기록된 문서를 남기지 않으셨지만 사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격을 구비시키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다음은 그 자체 안에 있는 증거, 이것이 성경 권위의 근거라는 것이다. 이 외에 다른 그 어느 것도, 즉 본 고백문이 직접 거론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권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분명한 선언인 것이다.

5. 성경의 충분성

제7장 : 성경은 완전하고 충분하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포함하며,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믿어야 할 모든 것이 그 안에 충분히 가르쳐져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¹³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든 방도가 그 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가르침 받는 것과 달리 가르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 있어서나 비록 사도라 할지라도 불법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러합니다.¹³²⁾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¹³³⁾, 성경의 교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쓴 어떤 것을 비록 그 사람들이 기록하다 할지라도 성경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되며, 관습이나, 다수의 군중이나, 고대성이나, 시간과 사람의 계승이나 공의회나 법령이나 국가를 하나님의 진리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되는데, 이는 진리가 모든 것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¹³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본래 거짓말쟁이이며, 입김보다 더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류 없는 규칙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온 마음을 다하여 거절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가르치는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시험합니다.¹³⁵⁾ 따라서 어떠한 사람이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당신을 찾아 올 때는 그를 집안에

서서, 특히 그가 떠나신 후에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의 증인들이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온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는 성경을 기록하여 예수를 증거하라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참조. 바빙크의 *개혁교의학개요*, 109-114.

또한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1권, 159-175에서 성경의 자증에 관하여 자세히 논하며, 벨코프도 그의 *조직신학(상)*, 175-177에서 이를 논한다.

131) 딤후3:16,17 칼빈, *디모데전후서* 주석, 593-595.

132) 갈1:8 칼빈, *갈라디아서* 주석, 507-509.

133) 잠30:6; 갈3:15; 계22:18,19; 신4:2, 12:32.

134) 골2:8 칼빈, *골로새서* 주석 573-575. 행4:19.

135) 요일4:1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¹³⁶⁾

먼저 본 고백문은 성경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침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한마디로 ‘충분한 성경’이라는 것이다.¹³⁷⁾ 이에 대한 성경의 근거는 딤후 3:16-17¹³⁸⁾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어서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든 방법의 정확한 기준임을 밝히며 고백한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달리 가르치는 자는 그가 누구라도 심지어 사도라 할지라도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불법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고백에 대한 성경의 근거는 갈라디아서 1:8절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에 대한 고백은 이것으로 거치지 않고 더 깊은 논의로 나아가는데, 성경에 대하여 더하거나 빼는 것이 금지된 완전하고 온전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고백함으로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¹³⁹⁾ 성경 말씀에 사람들의

136) 요이10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137) 이러한 성경의 충족성과 관련하여 당시 로마 교회나 제세레파는 성경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제세레파는 성경을 가치 없는 것으로 보고, 내적인 빛과 모든 종류의 특별 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로마 교회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대한 보충으로 구전 전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개혁자들은 성경의 완전성, 또는 충족성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신앙의 모든 조항들, 즉 모든 교의를 성경이 담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교의는 반성의 과정을 통해 성경으로부터 추론해 낼 수 있을 뿐이다. 충분한 성경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적어도 구원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성경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은 구원의 길을 알기 위하여 별도의 특별 계시나 보충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말씀인 성경만을 찾아보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참조.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상), 179-181.

138) 칼빈, *디모데전후서 주석*, 593-595.

139) 이에 대한 성경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잠30:6) “형제들이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갈 3:15)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생각을 더하는 버릇은, 말씀을 제하여 버리는 것보다도 더 많이 행하여지고 있다. 잠언 30:6절도 그것을 강조하며, 아무리 사람의 좋은 생각으로 성경을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생각일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그를 거짓말쟁이로 간주하신다. 갈라디아서 3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할 수 없는 언약의 증서임을 말한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유서를 가리키며, 이 유서는 쓴 사람이 죽은 다음에 효력이 있으며, 그 내용을 아무도 바꿀 수 없음은 상식이다. 계시록 22장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시는 사역이 마감되면서, 이 언약의 증서를 인봉하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모세의 5경이 씌어질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신4:2; 12:32).

또한 고백문은 성경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진리임을 선언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쓴 어떤 것을 비록 그 사람들이 기록하다 할지라도 성경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되며, 관습이나, 다수의 군중이나, 고대성이나, 시간과 사람의 계승이나 공의회나 법령이나 국가를 하나님의 진리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되는데, 이는 진리가 모든 것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문에 명시함으로 성경의 절대권위를 강조하고 있다.¹⁴⁰⁾

이상에서 보듯이 이 고백문에 제시되고 있는 성경관에 대한 깊은 신학적 이해는 개혁신학의 성경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며, 인간이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그 속에서 지시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기록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22:18,19)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라.”(신4:2)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신12:32)

140) 이러한 고백에 대한 근거가 되는 성서 구절을 보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골2:8)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행4:19)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인간의 가르침을 지적하며, 사람의 교훈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영생을 주시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닐 때 속임수가 된다. ‘사람의 유전’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관습을 뜻한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상황에서 이 유전을 만들어 내며, 그것을 성경말씀보다 중하게 여기거나 성경말씀과 혼합할 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된다. 초등 학문은 율법을 가리킨다(갈4:3,9).

시는 예배의 모든 태도가 그 속에 다 기록되어 있으므로,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성경 외의 것을 가르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합당한 일이 아니다. 이 책의 말씀 외에 무엇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린다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은 모든 면에서 성경의 말씀이 완전하고 충분한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본 고백문에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과 신앙의 삶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 정도에 있어서도 완전한 충분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말씀이 신자의 구원과 삶의 규범으로서 충분함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신에 기초해서 개혁신앙의 성경관은 그 권위에 있어 성경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못 박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이며 근거인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다.

특히 후반부에서는 인간의 형태에서 만들어진 그 어느 것도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서 허락되어지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것은 아주 깊은 신학적 이해인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성경을 단순히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인간의 구원과 삶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주권자로 고백하는 자세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정신은 다음에 다루게 될 칼빈의 입장과 비슷하다.¹⁴¹⁾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성경만을 통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성경에 대한 개혁신앙의 참된 신앙의 정신임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영광이 인간에게 돌아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되돌아가기 때문인 것이다.

제 3 절 외경, 위경의 근거와 비판

현대 성경신학의 중요한 연구 자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외경이나 위경 혹은

141) 본 논문 5장 2, 3절 참고.

초대교회의 문헌들 그리고 근동의 사회문화적 풍습에 관한 자료들이다. 이러한 자료들이 보조적으로 언급될 수는 있지만, 성경과 같은 권위 혹은 동등한 자료 중의 하나로 취급되는 것은 성경의 해석의 문제를 넘어서 성경관이 신학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위경과 외경에 관한 벨직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외경(Apocrypha)은 어원적으로는 “밀교적인 기록”을 뜻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교회 신앙의 정통으로 받아들여진 성경과 대치된 의미로, 정경에 들지 못한 14권이나 15권의 책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¹⁴²⁾ 이 책들은 모두 BC 2세기에서 AD 1세기 사이, 즉 신약약 중간기에 기록되어 이스라엘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또 신약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이 시대에 쓰여진 유대인의 수많은 다른 작품들로 위경이 있는데 이는 외경보다 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지만 이 역시 유대주의의 역사와 문화와 종교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요 신약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¹⁴³⁾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가톨릭교회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여 공동번역이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⁴⁴⁾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자료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성경과 함께 편찬하면서 공개적으로 출판되는 것은 성경 66권만을 신앙과 삶을 위한 유일한 규범으로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혼란과 위협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히브리어 구약성경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70인역 희랍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책들을 가리키는데, 최초로 외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제롬¹⁴⁵⁾이었다. 그는 구약성경의 외경이 기독교회의 교리의 권위를 확증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교화를 위한 것으로서 읽혀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단언했다. 그럼에도 교회의 관례 때문에 그의 라틴어 성경, 즉 불가타에

142) 헤리슨, *신약개론*, 정성구역(서울: 세종문화사, 1986), 125.

143) *기독교 대백과사전* 11권(서울: 기독교문사, 1986), 1298-12990. 장두만,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 155-157, 165-166.

144) *공동번역 성서*(서울: 대한성서공회, 1984)

145) *기독교 대백과사전* 11권 1300.

외경을 포함시켜야만 했는데, 이 성경이 로마가톨릭교회의 공식적인 성경이 되었다. 결정적으로 가톨릭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1546년 트레نت공의회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에 대항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나 연옥의 정당성, 또 행위에 의하여 의롭게 된다는 근거를 갖기 위하여 외경을 공식적으로 정경에 포함시키는 선언을 함으로 그 과오를 고착화시켰다.¹⁴⁶⁾

이러한 가운데서 외경을 정경으로부터 구별하고 분리해낸 것은 종교개혁자들이다. 마르틴 루터는 외경에 대해 “성서와 동등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으나 읽기에는 유익하고 좋다”라고 했다. 그는 외경을 독일어역 성경의 구약성경 끝에 수록함으로써 성경과의 차별을 분명히 했다.¹⁴⁷⁾ 이후로 모든 개혁 교회는 외경을 정경에서 분리했고, 각국어로 번역되는 성경에서도 외경은 아예 수록되지를 못했다. 외경의 가치에 대한 견해에 있어 오늘날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들이 따르고 있는 칼빈주의적 견해는 외경이 교회 안에서 아무런 권위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배척되어야만 한다는 견해이다. 이런 입장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3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외경으로 일컬어지는 책들은 결코 정경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이 책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무런 권위도 지니고 있지 않으며 또한 다른 세속적인 작품들과는 다른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도 없다.

사실 외경이나 위경은 처음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과 달랐기 때문에 정경이 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신약에서 구약이 많이 인용되지만 외경이 인용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있다. 결국 이것은

146) 트레نت 종교회의를 열게 된 동기는 개신교 측과는 이제 대화하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종교 개혁 운동에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자는 것이었다. 중요한 안건들은 무엇이 교회의 가르침을 위한 자료가 되는지를 확정하였는데, 즉 성경과 함께 전통이 자료가 된다는 것이었으며, 구약의 외경이 정경적임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라틴어의 ‘불가타’를 흠정역(authorized version)으로 인정하고 교회만이 권위 있는 성경 해석자임을 확인하였다. 7가지 성례를 그대로 인정하는 한편 성유물과 면죄부 사용도 재확인하였다. 참조. 김영재, *기독교 교회사*, 498-500.

147) *기독교 대백과사전* 11권, 1296.

외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외경, 위경에 대한 벨직 신앙고백의 입장은 어떠한가?¹⁴⁸⁾

이에 대한 고백문(벨직 신앙고백 제 6장)을 살펴보자.

우리는 이 거룩한 책들을 외경으로부터 구분합니다. 외경은 에스드라 3과 4, 토비트, 유딧, 지혜서, 집회서, 바룩, 아사라의 기도와 불 속에서의 세 젊은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 용, 므낫세의 기도, 마카베오 상과 하입니다. 교회는 그것들이 정경과 일치하는 한에 있어서 그것들을 읽거나 그것들로부터 교훈을 취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그것들의 증거로부터 믿음이나 기독교 종교의 어떤 점을 확증할 만한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오히려 정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데 쓰일 수가 있습니다.

고백문은 “우리는 이 거룩한 책들을 외경으로부터 구분합니다”라고 선언한다. 외경에 관하여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생소하지만 벨직 신앙고백은 이에 대해 분명한 언급을 하고 있다. 외경은 에스드라 3과 4, 토비트, 유딧, 지혜서, 집회서, 바룩, 아사라의 기도와 불 속에서의 세 젊은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 용, 므낫세의 기도, 마카베오 상과 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 이 외경이 가톨릭과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미 사용되며 마치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 특히 가톨릭교회 성경에는 이 외경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¹⁴⁹⁾ 그러나 본 고백문은 거룩한 책들을 외경으로부터 구분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권위를 갖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더 나아가 교회는 그것들이 정경과 일치하는 한에 있어서 그것들을 읽거나 그것들로부터 교훈을 취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그것의 가치를 아예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외경이 믿음이나 기독교 종교의 어떤 점을 확증할 만한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며 그 가치의 한계를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데 쓰일 수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 위험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48) 비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장 3항.

149) 공동번역 성서(가톨릭용)(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

제 6 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성경 관 150)

전체 33장으로 구성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는 맨 처음 1장에서 성경론을 다루고 있다. 그만큼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장 성경은 10개의 세부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성경에 대한 각 조항의 고백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이고 그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의 성경관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 1장 성경

1.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¹⁵¹⁾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¹⁵²⁾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여기 1항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의 원천으로서의 성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은 본성의 빛(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의 씨 혹은 신의식)과 창조세계와 그 섭리 사역, 즉 일반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15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분석을 위해 주로 나용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와 박윤선,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서울: 영음사, 1989)를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151) 눅24:27; 딤후3:16.

152) 눅16:29-31; 뱀후1:10; 히2:1-3.

능력을 분명히 나타내셨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아무도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계시로 성경을 주셨다. 바로 여기에 성경의 절대필요성이 있음을 이 고백문은 강조하고 있다. 또 이 고백문은 성경이 온전히 기록되어 정경으로 완성됨으로 해서 일단 하나님의 직접계시가 완료되었고, 따라서 지금은 새로운 내용의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주어지지 않음을 분명히 언급한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¹⁵³⁾

2.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 신구약에 있는 다음과 같은 모든 책들이 포함된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¹⁵⁴⁾

여기 2항에서는 정경으로 인정된 성경에 대해 언급한다. 여기 명시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만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요 성경이다. 이 고백문은 이 모든 책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절대규칙임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또 하나님이 친히 주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독자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거나, 독자에게 하나님의

153) 나용화, 11-12; 박윤선, 11-12, 17.

154) 엡2:20; 계22:18-19; 마11:27; 딤후3:16.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며, 성경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어떤 다른 것은 사람의 말인 것이 아니다.¹⁵⁵⁾

3.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신적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정경(正經)의 일부가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가 없고, 또한 다른 인간적인 저작물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며 사용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3항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인정하고 있던 외경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외경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사 시대의 역사적 배경이나 종교적 상황을 아는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과 생활의 규칙으로서는 부적절하다. 본 고백문은 외경이 다른 인간적인 저작물과 다름이 없다고 하여 그 권위와 사용가치를 분명하게 부정하고 있다. 예수님과 사도들도 외경을 사실상 인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것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¹⁵⁶⁾

4.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저자이시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¹⁵⁷⁾

4항은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해 언급한다. 성경에 권위가 있음은 그것의 저자가 진리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그래서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린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권위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권위 때문에 성경이 권위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학자들은 사도적 권위 때문에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교회나 사도는 진리 자체가 아니요 약점과 흠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신

155) 나용화, 13-15; 박윤선, 12-13.

156) 나용화, 15-16; 박윤선, 13.

157) 살전2:13; 딤후3:16; 갈1:11-12; 뱌후1:21.

적 권위의 원천이 될 수가 없다. 오직 진리이시오 무흠하신 하나님만이 성경의 권위를 보증할 수 있다.¹⁵⁸⁾

5.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감동과 권유를 받아 성경을 아주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신령함, 교훈의 효험, 문체의 웅장함, 모든 부분의 내용상의 일치성, 내용 전체의 목표(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 주는 충분한 내용 전개, 이 외에도 많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점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 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 주는 논증들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오한 진리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해서이다.¹⁵⁹⁾

5항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려주는 증거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성도들은 교회의 신령하고 권위 있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내용이나 문체의 웅장함 등을 통해서도 좋은 증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권위 있는 증거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증거하는 성령의 내적 증거이다. 비록 성경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진리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 있지만, 성령께서 그 확실성을 증거해 주는 때에야 비로소 그것이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은밀한 내적 증거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확신을 구해야 한다.¹⁶⁰⁾

6.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하고 적절한 논리에 의하여 성경에서 연역될 수가 있다.¹⁶¹⁾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 것도 어

158) 나용화, 16-17; 박윤선, 13, 18-19.

159) 고전2:10-11; 요16:13-14; 고전2:6-9.

160) 나용화, 17-18; 박윤선, 13.

161) 막7:5-7.

는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가 없다.¹⁶²⁾ 그러나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¹⁶³⁾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는 인간적인 활동이나 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격식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격식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들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¹⁶⁴⁾

여기서는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규칙으로서 충분하다는 이른바 성경의 충족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믿음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충분하고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성령의 계시를 얻으려 하거나 교회의 새로운 결의나 사람들의 색다른 교훈이 첨가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필요한 지식을 얻는 데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고백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¹⁶⁵⁾

7.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¹⁶⁶⁾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그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¹⁶⁷⁾

7항은 소위 성경의 자명성 혹은 명료성에 대해서 강조한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쉬운 부분도 있으나 아주 난해한 부분도 있다(벧후3:16). 그러나 누구든지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아주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의 성도라도 그 지식을 쉽게 그

162) 딤후3:15-17; 갈1:8-9; 살후2:2.

163) 요6:45; 고전2:9-12.

164) 고전14:26,40; 11:13-14.

165) 나용화, 18-19; 박윤선, 14-15.

166) 벧후3:16; 요16:17; 6:30.

167) 시119:105,130; 행17:11-12.

리고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성도이면 누구나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성경이 명료하지만 성도는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적절하게 연구해야 한다.¹⁶⁸⁾

8.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히브리어는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한 언어)과,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헬라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국제어)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에 의해 예나 지금이나 순전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임할 만하다. 그러기에 모든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¹⁶⁹⁾ 그러나 이 원어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성경을 가질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 받았다.¹⁷⁰⁾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이 전수(傳受)된 모든 나라의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원어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¹⁷¹⁾

8항은 성경이 신학적 논쟁을 해결하는 최종적인 권위를 갖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 중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하나님의 계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고 적절하였다. 그런 까닭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알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좋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과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을 성령의 감동 아래 기록하여 완벽하게 보존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에 원어 성경이 신학적 논쟁을 해결하는 데 최종적 권위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이 원어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도가 구원을 얻는 지식을 오직 성경에서만 얻을 수 있고, 또 성도이면 누구나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나라와 족속의 방언, 곧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168) 나용화, 20; 박윤선, 15.

169) 사8:20; 행15:14-18.

170) 요5:39; 답후3:14-15; 뱀후1:19.

171) 고전14:6,9,11-12, 27-28; 마28:19-20; 골3:16; 롬15:4.

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접할 수 있게 된다.¹⁷²⁾

9. 성경 해석을 위한 무오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 때에는 (참되고 완전한 의미는 여럿이 아니고 하나뿐임), 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연구하고 알아내야 한다.¹⁷³⁾

여기서는 성경이 자기 자신의 해석자임을 강조한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무오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얼핏 보아 해석하기 곤란한 성경 구절은 다른 구절에서 좀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경우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20:1-6절만을 보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사이에 문자적으로 천년기가 지상에 있을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나 복음서와 서신들(마25:32,33; 요5:25-29; 행24:15; 고전15:21-24, 51-52; 살전5:16-18)의 여러 구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천년기를 지상에서의 문자적 천년기로 보지 않게 되는 것이다.¹⁷⁴⁾

10.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는 다른 아무도 될 수 없다. 이 재판관에 의하여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들이 결정되어야 하고, 교회회의의 모든 신조들과, 고대 교부들의 학설들과, 사람들의 교훈들과, 거짓 영들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의 판결에 우리는 순복해야 한다.¹⁷⁵⁾

10항은 종교적 또는 신학적 논쟁이나 교리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심을 강조한다. 즉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나 주교회의 또는 여타의 교회 회의가 결코 최고의 재판관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의 회의나 학설 또는 신조들도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에 의해 항상

172) 나용화, 20-22; 박윤선, 15-16.

173) 막4:5-7; 12:1-7.

174) 나용화, 22-23; 박윤선, 16.

175) 마22:19,31; 행28:25; 엡2:20.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¹⁷⁶⁾

176) 나용화, 23-24; 박윤선, 16.

제 7 장 현대개혁주의 입장

성경관에 대한 교회사적인 고찰과 종교개혁시대의 성경관을 벨직 신앙고백서와 함께 생각하면서 개혁주의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이다. 성경관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으로 벨코프와 버스웰을 다룬다. 여기에 한국교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칼 바르트의 성경관에 대한 비판과 가장 대표적인 개혁주의자인 헤르만 바빙크의 성경관에 대한 정리를 통하여 조직신학적으로 성경관을 정리해본다.

제 1 절 벨코프의 성경관¹⁷⁷⁾

벨코프는 성경은 그 신적 영감에 의해서만 인간의 모든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다.¹⁷⁸⁾ 성경의 전체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고, 이 사실은 성경으로 하여금 인류를 위한 신앙과 행위의 무오한 법칙으로 되게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영감이 가끔 부정되고 더욱이 자주 오해받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고 말한다.

그는 영감의 교리는 모든 다른 교리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구약성경의 저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명한 바를 쓰도록 반복적으로 명령을 받았고,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의식하였다는 것이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자주 구약을 인용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령의 말씀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자기의 말을 영이 가르쳐준 말씀으로 말하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¹⁷⁹⁾ 바울은

177) 벨코프의 성경관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벨코프 조직신학*, 권수경, 이상원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음을 밝힌다.

178) 루이스 벨코프, *기독교 신학개론*, 신복윤 역(서울: 성광문화사, 1987), 39.

179) 고전2:13; 고후13:3.

성령에 관한 표준적인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3:16)

영감의 성질과 관련하여 벌코프는 잘못된 두 견해인 기계적 영감설과 동력적 영감설을 언급하는데, 자신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개혁주의에서 용납하고 있는 유기적 영감설을 지지한다.¹⁸⁰⁾ 유기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저자를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들 자신의 내적 존재의 법칙과 잘 조화시켜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그는 말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경 저자들의 성품과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교양, 용어, 어법, 문체 등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것이다.¹⁸¹⁾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저자들의 마음을 조명하셨으며 저자들을 격려하여 저술케 하였고 저자들의 문서 활동에 미치는 죄의 영향을 억압하셨으며 또한 저자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언어를 선택하고 그들의 사상을 표현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이 견해가 분명히 성경의 표현과 가장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벌코프는 말한다.

영감의 범위와 관련하여 벌코프는 성경의 영감을 언어의 영감이 아니고 사상의 영감이라고 주장하는 견해, 영감이 성경의 어떤 부분에만 관련되었다고 주장하는 견해 등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성경에 의하면 영감은 성경의 모든 부분에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영감은 성경의 언어 하나하나에까지 미쳤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때 성경이 축자적으로 영감되었다는 말은 기계적으로 영감되었다는 말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¹⁸²⁾ 축자 영감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받아쓰도록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용어와 표현을 선택함에 있어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들의 단어를 무시 또는 문체와 표현의 개성을 억제하든가 하지 않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어떤 학자는 이 학설을 기계적 영감설과 동일시

180)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상)*, 162-165.

181) *Ibid.*, 164.

182) 버스웰도 그의 *조직신학* 책에서 축자적 영감은 영감의 양식이 아니라 범위를 언급하는 용어라는 것이 분명하게 주장되어야만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축자적 영감이라는 용어로 영감의 양식에 대한 기계적인 구술 이론을 주장하려 한다고 지적한다. 올리버 버스웰, *조직신학(1)*, 293-294.

될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완전영감설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는 이 학설이 성경의 충분한 확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⁸³⁾

별코프는 종교개혁자들이 로마가톨릭교회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발전시킨 성경의 교리들으로써 성경의 신적 권위,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명료성, 성경의 충속성이 있음을 말한다. 먼저 성경의 신적 권위와 관련하여 그는 로마교회와 개혁자들은 다같이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였으나 그들이 각각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말한다. 로마교회에 의하면 성경은 그 자체로서는 권위를 갖지 못하나 그 존재와 권위는 교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고유의 권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성경은 그 자체의 권위 때문에 믿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러기 때문에 권위로써 인간에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한다. 오늘날 성경의 신적권위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이 권위를 강조하는 것은 가장 중대한 일이라고 별코프는 말한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먼저 역사적 권위를 지니고 있고, 또한 성경은 생활과 행위의 법칙으로서의 규범적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하여는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¹⁸⁴⁾

성경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별코프는 로마가톨릭교회는 성경의 중요성과 유용성은 인정하면서도 성경의 절대적 필요성은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들에 의하면 교회가 성경을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이 교회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이에 반대하여 기록된 말씀으로 하여금 교회의 씨(종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옹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성경은 시간의 종말까지 존재하게 되며 또한 반드시 남게 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¹⁸⁵⁾

성경의 명료성과 관련하여 로마교회는 성경은 흐려지고 손상되어서 신앙과 행위의 문제까지도 해석해 줄 필요가 있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무오의 해석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종교개혁

183) 루이스 별코프, *조직신학(상)*, 165-168.

184) *Ibid.*, 175-177.

185) *Ibid.*, 177-178.

자들은 이런 견해를 반대하여 성경의 명료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은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 동등하게 명백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게 구원을 찾는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다 자기를 위하여 이 지식을 섭취할 수 있는 단순하고도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성경을 통하여 인간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나 사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는 것이다.¹⁸⁶⁾

성경의 충족성과 관련하여 로마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충분한 계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구전을 기록된 말씀의 필요한 보조물로 생각한다. 그들에 의하면 이 구전은 사도들이 전한 진리를 구체화한 것이지만 기록하도록 위탁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대대로 아무 장애 없이 로마교회 내에서 전달되었다. 이것들은 오늘날 주로 각종 회의의 신조, 교부들의 저작, 교회의 선언문, 그리고 기도서 등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어떤 보충물을 필요로 한다는 로마교회의 입장에 반대하여 성경의 완전성, 충족성을 주장했다. 이것은 예언자들,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이 말하고 쓴 것은 무엇이든지 다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기록된 말씀이 개인과 교회의 영적 도덕적 욕구를 위해서 충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록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동등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우월한 권위를 갖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함을 뜻한다는 것이다.¹⁸⁷⁾

제 2 절 바르트의 성경관에 대한 비판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3중적 형태로 풀이한다.¹⁸⁸⁾ 그 주된 형태(제 1의 형태)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생애,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그리고 그 사건들 주변에서 있었던 하나님

186) Ibid., 178-179.

187) Ibid., 179-181.

188) David L. Muller, *칼바르트의 신학사상*, 이형기 옮김(서울: 엠마오, 1996), 59.

의 행동들을 망라하는 모든 역사, 이것이 계시 자체이며 복음이라고 말한다. 제 2의 형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특권적 증거이다. 제 3의 형태는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복음 선포를 말한다. 여기서 말씀의 제 2, 3 형태, 즉 성경과 설교는 도구적 의미로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르트는 성경에 대하여 말하기를, 성경 그 자체는 계시의 원초적 형태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원초적 증거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계시에 대한 증언을 구별한다. 바르트는 어떤 식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말씀되게 하시는 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대답한다.¹⁸⁹⁾ 그는 성경에 대한 교리를 취급하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한다. “성경은 그것이 성령에 의하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증언이 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¹⁹⁰⁾ 성령으로 성경의 기자에게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들의 증언 속에 다시 현존하실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다. 바르트는 종교개혁 이후 발전한 개신교 정통주의에서 말하는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교리를 비판했다.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들에 반대하여 무조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해 버렸다는 것이다. 소위 성경을 “종이 교황”으로 만들어 우상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정통주의는 성경을 오류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가정한 나머지, 성경을 계시에 대한 증언으로 보지 않고 교리를 위한 자료집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경직되고 합리주의적인 정통주의적 영감 교리는 성경적 증언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바르트의 주장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성경은 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189) David L. Muller, *칼바르트의 신학사상*, 62.

190) *Ibid.*, 62.

(becomes)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여금 그 분의 말씀이 되도록 하시는 경우에, 그 분이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또 그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면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간의 말과 사상들을 통하여 그리고 인간들의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반복하고 재현하려는 인간들의 시도이다”라고 주장한다.¹⁹¹⁾

칼 바르트가 역사적인 요소를 거부하는 성경 비평 방법을 채택한 자유주의자들의 오류를 지적한 것은 옳았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시 자체로 인정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사건에 대한 증언일 뿐만 아니라 계시 그 자체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지나치게 구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경의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결정권을 회중 개개인들의 주관적인 수용과 선택에 두었다.¹⁹²⁾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성경 가운데서 내가 깨닫고 내가 은혜 받은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은 결국 주관주의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다.

제 3 절 버스웰의 성경관¹⁹³⁾

버스웰은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지식이 그 안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영감을 성경의 저자들이 오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산출하도록 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으로 정의한다. 그는 성경 저자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의미에서 영감되었고, 또 그들의 저술들

191) 스탠리 그렌츠, 로저 올슨, *20세기 신학*, 신재구 옮김(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4), 108.

192) 박찬호, *칼 헨리* (과주: 살림출판사, 2006), 30-31.

193) 올리버 버스웰, *조직신학 1권*, 권문상, 박찬호 옮김(서울: 웨스트민스터출판부, 2005)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그의 성경관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그것들이 저자들을 통한 성령의 사역의 산물이라는 의미에서 영감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성경은 계시이며 모든 성경은 영감된 것이지만, 계시는 성경 바깥에 있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증거를 포함하기에 그 범위가 영감보다 넓다고 말한다.

또한 버스웰은 영감과 관련하여 전체 성경은 그 각각의 단어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며 “원문에 있어 무오하다”고 주장되는 정통 신학자들의 입장, 즉 축자적 영감 혹은 “원문의 축자적 무오”의 입장을 지지한다. 그러나 영감의 범위와 양식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전체 성경은 그 각각의 단어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며 “원문에 있어 무오하다”고 주장되는 정통적인 견해인 축자적 영감은 영감의 양식이 아니라 영감의 범위를 언급하는 용어라고 강조하여 말한다. 그는 축자적 영감을 변호하는 수많은 학적인 권위자들은 축자적 영감이 어떠한 기계적인 이론이나 구술적인 이론도 함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한다.¹⁹⁴⁾

버스웰은 정경성과 관련하여 정경성은 교회의 인정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성경의 여러 책들이 쓰여졌을 때 이미 정경적이었다는 것이 자신의 주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여러 책들은 읽혀지고 공부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교회에 의한 인정은 어떤 경우에 시간을 요했다. 4세기 말엽이 되어서야 교회 회의는 형식적인 책의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목록은 권위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이미 기독교 공동체에 의하여 인정된 책들을 사실적으로 선언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교회 회의가 성경이 권위적이라는 것을 정했다는 주장처럼 잘못된 주장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¹⁹⁵⁾

외경과 관련하여 그것은 결코 잃어버린 책이라든지 억압받은 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책들은 항상 성경학자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단지 충분히 흥미롭거나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대중에게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¹⁹⁶⁾

194) 올리버 버스웰, *조직신학* 1권, 290-294.

195) Ibid., 303-305.

196) Ibid., 305-306.

버스웰은 성경이 정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일 성경에 주의한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성경이 성경이라는 것, 그리고 영감된 책들이 영감된 책들이라는 증거를 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과 믿음의 근거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제 1장, 특별히 단락 4와 5의 가르침이라고 밝힌다. 그러면서 버스웰은 성경의 권위와 정경성의 최종적이고 결론적인 증거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견해, 성경 저자들의 서로에 대한 증언을 예로 들며 그들이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한다.¹⁹⁷⁾

그는 35년 이상의 그의 가르치는 사역을 두고 자신의 성경관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힌다. “나는 반(反)성경적인 신학대학원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현대의 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각종 교육기관의 자연주의적인 철학과 세속적인 경향 한 가운데서 성경을 택하여 그것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나는 모든 시험의 항목에서 성경이 진실임을 발견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¹⁹⁸⁾

제 4 절 바빙크의 성경관

‘성경’관 혹은 성경에 대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은 성경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먼저 계시와 성경이라는 둘 사이에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부분에 가장 대표적인 개혁주의적 교의학자인 헤르만 바빙크의 입장을 통하여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과 계시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자면, 계시는 그것을 기록한 성경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있었고, 그 계시는 후에 글로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요20:30; 21:25).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글을 쓰는 동안 그 전에는 알지

197) Ibid., 307-309.

198) Ibid., 331-332.

못했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전에 전하지 않은 내용들을 계시하기도 하셨다. 따라서 성경은 계시 그 자체가 아니요, 계시의 묘사요 기록으로서 그것을 통해서 계시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¹⁹⁹⁾

그러나 동시에 성경을 계시의 기록이라고 주장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계시와 성경을 구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둘을 서로 분리시키고 때로는 서로 격리시키는 이론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 이론들에 따르면 하나님은 성경보다 앞서서 계시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활동하셨음을 인정하지만, 그 계시를 기록하는 일은 전적으로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졌고 따라서 그 기록하는 일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의 경계 바깥에서 이루어졌다는 주장인데, 이러한 입장의 결국은 성경이 계시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우연적이며 결함이 있는 기록임을 주장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주장을 수용한다면 독자들이 성경을 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성경을 일일이 조사하여 그 중에 어떤 부분이 특별 계시에 속하고 또 그 중에 어떤 부분이 거기에 속하지 않는지를 가려내고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구분이 결국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성경의 규범 역시 인간의 기준 혹은 시대적 기준으로 좌우되고 마침내 해석의 문제 혹은 상황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이러한 논의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표현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 논의를 더 분명하게 전개해 보도록 하자.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는 관계없이 생겨난 것이라는 견해’라는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바빙크는 이러한 주장은 성경 자체의 증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한다.²⁰⁰⁾ 그는 먼저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거듭거듭 매우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다. 성경을 그보다 앞서는 계시와 구별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계시와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경은 계시에 덧붙여진 인간적이며 우연적이며 임의적이며 결함 있는 보조물이 아

199)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 개요*, 108.

200) Ibid., 109.

니라 그 자체가 계시를 구성하는 부분이요, 사실상 성경이야말로 계시의 성취요 모퉁이돌이요 관석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분명한 주장인 것이다.

이러한 논의 역시 그 주장에 근거가 되는 근거들이 언급되어 할 것이다. 계시의 성취로서의 성경을 보여주는 성경의 분명한 자증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입으로 선포하라고 명하기도 하신다.²⁰¹⁾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된 말씀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를 글로 기록하는 일을 특별히 보살피셨음을 동시에 확인하며 성경의 계시적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계시의 전달자 역시 입으로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기록의 중요성을 확신하며 또한 기록으로 남겼다고 성경은 주장한다. 즉 모세와 선지자들 스스로도 말씀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글로써도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모세와 이사야와 다윗과 다니엘 등을 통해서 주어진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거듭거듭 인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을 분명히 보여준다.²⁰²⁾ 그리고 더 분명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성경을 폐하지 못한다고 선언하셨다(요10:35).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사도 베드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벧후1:21)고 성경의 근거를 밝히고 있으며, 사도 바울 역시 구약을 구성하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딤후3:15,16). 넷째,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비록 예수님께서 친히 기록된 문서를 남기지 않으셨으나 사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격을 구비시키셔서 특히 그가 떠나신 후에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의 증인들이 되도록 하셨다.²⁰³⁾

성경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주제가 영감 혹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것이다. 계시를 기록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구체적인 활동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영감이라 정의한다.(딤후3:16) 사실 현상세계에는

201) 출17:14; 24:3,4,7; 34:27/ 사8:1; 렘25:13; 겔24:2; 단12:4; 함2:2.

202) 마8:4; 15:7; 요7:38; 히3:7.

203) 마10:1; 막3:13; 눅6:13; 요6:70.

다양한 영감이 있으며 그것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최면이나 암시, 악령의 영향력과 권세, 예술가들의 영감 등의 자연적 현상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에 영향을 주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것과 성경과 관련된 영감을 바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세상과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활동과 선지자와 사도들에게서 역사하신 활동이 서로 구별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²⁰⁴⁾

성령님의 활동과 관련하여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모든 신자들이 누리는 것이라면 성령의 감동하심은 오로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감의 특별한 성격은 신약에서 구약을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문구에서 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구약에 기록된 내용을 가리켜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며(마1:22; 2:15 등), 이 문구들에 사용된 헬라어 표현은 주님을 그 말씀의 출처요 기원으로 제시하며, 또한 선지자들을 그 말씀의 수단 혹은 대리자들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하나님이 혹은 성령이 그 말씀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다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대리자들로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표현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²⁰⁵⁾

그러나 바빙크는 이런 암시들을 근거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정신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하지 않고 그저 일종의 말하는 입으로서만 성령을 섬긴 수동적인 대리자들이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즉 기계적 영감을 배격한다.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으나 그들 스스로가 말한 것이라고 말한다(벧후1:21). 성경에 속한 모든 책들에서 기록자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그의 성품의 특별한 면, 개인적인 성장과 교육, 언어와 스타일 등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영감을 생각하면 성경의 인간적인 면을 지극히 정당하게 대하게 된다고 바빙크는 말한다. 그러한 이유들로 성경의 특정한 책이 어떤 상황에서 생겨났고, 누가 기록했으며, 누구를 위하

204)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 개요*, 114-116.

205) Ibid., 116-117.

여 기록했는가 하는 등등의 문제를 연구 조사하는 특별한 분야(고등비평)가 악용되지만 않는다면, 도리어 이런 연구와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에 큰 유익을 얻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직접 구약과 신약 성경 각권의 기원을 간단히 살피는 역사적 탐구를 서술한 후 이렇게 결론짓는다. “성경 전체가 비록 역사적 정황 속에서 생겨났으나, 어거스틴의 말처럼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의 그의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각 책들의 기원을 살피는 “역사적 탐구”가-그것을 악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런 탐구를 진행할 수가 있다-성경의 신적 성격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연구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예술 작품을 존재하게 하신 그 놀라운 방식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에 정말로 합당한 것이다.”²⁰⁶⁾

정경의 형성과 관련하여 바빙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교회가 이 정경을 만들었다거나, 교회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록들에 정경의 권위를 부여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글들이 작성된 그 순간부터 즉시 교회에서 권위를 지니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 믿음과 생활의 규범으로서 활동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후에 가서 기록된 것으로서, 그 권위는 사람에게서나 신자들의 권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권위를 부여하시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²⁰⁷⁾

206) Ibid., 117-130.

207) Ibid., 131.

제 8 장 결론

성경이 갖는 중요성의 근거는 성경이 계시의 책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인 기록하고 신성한 성경(Scripture)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말씀한다. 즉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를 세상에 계속 전하시며, 그 계시의 내용을 사람의 생각과 삶에서 유효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성경은 단순히 옛날에 발생한 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하심이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안에 계속 살아 있으며, 그것이 주어질 때와 똑같이 지금도 빛과 생명과 기록을 가져오고 있다.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하여 죄인의 존재와 의식을 새롭게 하신다. 성경은 성령께서 교회를 확장시키시고 인도하시며 성도들을 완전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주된 도구이다. 성경은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합하는 영구적인 띠이다.

초대교회사 가운데 성경이 확증되지만, 교회가 이 정경을 만들었거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록들에 정경의 권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이 작성된 그 순간부터 즉시 교회에서 권위를 지니게 되었고, 또한 교회 안에서 믿음과 생활의 규범으로서 활동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기록되지 않고 후에 가서 기록된 것이지만 그 권위는 사람에게서나 신자들의 권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권위를 부여하시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이성과 특별한 체험을 근거로 이러한 성경에 관하여 이론을 제기하고 그 권위에 대하여 도전해 온 것을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과 교회 전체가 성경에 관하여 미신적인 요소로 치장하고 있을 때, 16세기의 개혁자들은 먼저 성경에 관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정리하였다. “오직 성경만으로(sola scriptura!)”

개혁주의적 신앙고백서들에서는 인간의 형태에서 만들어진 그 어느 것도 신앙

과 삶의 규범으로서 허락되어지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공통된 신학적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런 신학적 이해는 오늘날의 성경관과는 분명히 다르며²⁰⁸⁾, 특히 이러한 자세는 성경을 단순히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을 인간의 구원과 삶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주권자로 고백하는 자세에 근거한 성경관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정신 곧 성경에 근거한 참된 신앙은 루터와 칼빈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성경을 통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나 신학은 동일하게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에도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개혁신앙의 참된 신앙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신앙고백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영광이 인간에게 돌아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되돌아가게 된다.²⁰⁹⁾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성경을 강조하는 것은 어느 한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신학에서는 성경에 관한 논의를 조심스럽게 다루거나 논외로 취급하며, 그 대신 성경관에 대한 분명한 논의 없이 성경 해석학적인 문제로 그 주제를 바꾸어 버렸다. 결국 성경의 절대성 혹은 권위를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고, 성경 해석의 다양성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있어서 신학의 주제로서의 성경관은 마치 다윈주의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은, 신적 계시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을 허락하신 것이란 사실을 다시금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²¹⁰⁾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하시는 분은 영원한 존재이며 창조주시고 또한 섭리자이시기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기에 항상 새롭게 듣는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은 새창조가 완성될 때에야, 즉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영감을 받고 여호와에 관해 충분히 가르침을 받을 때에야 그 목적을 완전히 다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8) 알리스터 맥그래스, *복음주의와 기독교적 지성*, 59-129.

209) 김영재, *교회와 신앙고백*, 124-137.

210)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 개요*, 109.

참고 문헌

- 공동번역 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84.
- 기독교 대백과 사전 11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3.
- 김성봉, “벨직신앙고백 강의”(http://www.sbpcc.co.kr.)
- 김영재, *교회와 신앙고백*, 서울: 성광문화사, 1991.
- _____, *기독교 교회사*, 서울: 이레서원, 2004.
- 김의환,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 나용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 박윤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울: 영음사, 1989.
- 박일민, *개혁교회의 신조*, 서울: 성광문화사, 1998.
- 박찬호, *칼 헨리*, 경기 파주: 살림출판사, 2006.
- 윤태경, “교회사에 고백되어진 향존하는 교회에 관한 연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장두만,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 서울: 요단출판사, 1987.
- Alistar E. McGrath, *역사 속의 신학 (Christian Theology)*. 김홍기 외 3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_____. *복음주의와 기독교적 지성*, 김선일 역, 서울: IVP, 2006
- Amstrong, Willam P. *칼빈의 종교 개혁사상 (Calvin and the Reformation)*.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 Bengt Hggglund, *신학사*, 박희석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 Berkhof, Louis. *별코프 조직신학(상) (Systematic Theology)*. 권수경 ,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5.
- Bernhard Lohse, *루터 연구 입문 (Martin Luther An Introduction to His Life and Work)*.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 Bouwsma, William J. *칼빈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이양호, 박종숙 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1.
- Buswell, Jr. Oliver. *조직신학 I (A Systematic Theology of the Christian Religion)*. 권문상, 박찬호 역. 서울: 웨스트민스터출판부, 2005.
- B. S. Childs, *구약신학*,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2.
- Calvin, John. *기독교 강요: 1536년 초판 완역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양낙홍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8.
- _____. *기독교 강요(상), (중), (하)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 II 김종흡 외 3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 _____.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문제 역. 서울: 혜문사, 1986.
- _____. *기독교 강요 요약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 _____. *갈뱅의 요리문답 (Confession de la Foi de Geneva)*. 한인수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5.
- _____. *구약성경 주석*. vol. 1-29., 한국기독교선교백주년기념 존 칼빈 성경 주석 출판위원회 역편.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6.
- _____. *신약성경 주석*. vol. 1-10. 한국기독교선교백주년기념 존 칼빈 성경 주석 출판위원회 역편.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6.
- _____. *요한 칼빈의 신학 진수 (A Compend of the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 이종성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8.
- Daniel L. Migliore, *기독교 조직신학개론*. 장경철 역. 서울: 장로교출판사, 2002.
- David L. Muller, *칼 바르트의 신학사상*. 이형기 역. 서울: 도서출판엠마오, 1986.
- D. L. Baker, *구속사적 성경해석학*, 오광만 역, 서울: 엠마오, 1989.
- Donald G. Bloesch, *복음주의신학의 정수*. 이형기, 이수영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 Donald K. McKim, *칼빈신학의 이해*. 이종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1.
- Dunn, Samuel *요한 칼빈의 신학 진수 (The Best of John Calvin)*. 김득용 역.

- 서울: 성광 문화사, 1992.
- E. J. Young, *구약총론*, 홍반식, 오병세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0.
- Geoffrey W. Bromiley, *바르트 교회교의학 개관*. 신옥수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 John Goldingay, *구약해석의 접근방법*, 김의원, 정용성 공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2.
- Justo L. Gonzales, *종교 개혁사 (The Story of Christianity: Reformation)*. 서영일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87.
- _____. *초대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95.
- _____. *기독교사상사(1)*, 이형기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G. F. Hasel, *현대신약신학의 동향*, 장상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G. F. Hasel, *현대구약신학의 동향*, 이군호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 Herman Bavink, *개혁교의학 개요*.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 Herold Linsell, *성경에 관한 논쟁*, 정창영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 John T. McNeill. *칼빈주의의 역사와 성격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양낙홍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 Joseph Haroutunian, *칼빈 주석의 정수 (Calvin: Commentaries)*, 이종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 Luther, Martin. *종교개혁 3대 논문 (Three Treatises)*, 지원용 역. 서울: 컨클리디아사, 1993.
- Millard J. Erickson, *복음주의 조직신학(상)*, 신경수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 _____. *칼신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미래 신학에 대한 쟁점과 전망*, 김성봉 역. 서울: 나눔과 섬김, 2002.
- Meeter, H. Henry. *칼빈주의 기본사상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박윤선, 김진홍 역.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2003.
- Neuser, Wilhelm H. “칼빈의 예정론: 에베소서1장과 로마서9장 주석”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Interpretation of Ephesians 1 and Romans 9)

- 김성욱 역. *설교자 칼빈*. 서울: 웨스트민스터출판부, 2004: 61-73.
- _____. “노이저 교수의 칼빈 연구를 위한 제안” 김성욱 역. *설교자 칼빈*. 서울: 웨스트민스터출판부, 2004: 117-130.
- _____. “로마서 7장에 대한 칼빈의 이해” 김성욱 역. *설교자 칼빈*. 서울: 웨스트민스터출판부, 2004: 33-46.
- _____. *칼뱅 (Calvin)*. 김성봉 역. 성남: 도서출판 나눔과 섬김, 2000.
- Niesel, Wilhelm. *칼빈의 신학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 Paul Althaus, *마르틴 루터의 신학 (Die Theologie Martin Luthers)*. 구영철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4.
- Phillip Schaff, *교회사전집 2권*, 이길상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 _____. *신조학*, 박일민 편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 Quistorp, Heinrich. *칼빈의 종말론 (Calvin's Doctrine of the last Thing)*. 이희숙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 Reed, R. C. *칼빈주의 뿌리와 열매 (The Gospel as Taught by Calvin)*. 홍병창 역. 서울: 교회교육연구원, 1985.
- R. Bultmann, *신약성서학*, 허혁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 R. K. Harrison, *신약개론*, 정성구 역, 서울: 세종문화사, 1986.
- Stanley J. Grenz & Roger E. Olson, *20세기 신학 (20th Century Theology)*. 신재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4.
- _____. *신학으로의 초대*. 이영훈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2.
- Stanley J. Grenz, *조직신학*. 신옥수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 Spencer, D. *칼빈주의 5대 교리 (The Five Points of Calvinism)*. 신청기 역. 서울: 성도출판사, 1991.
- Spitz, Lewis W. *종교 개혁사 (Protestant Reformation)*. 서영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 Spykman, Gordon J. *개혁주의 신학 (Reformational Theology)*. 류호준, 심재승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 Stauffer, Richard. *인간 칼빈*. 박건택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9.
- T. H. L. Parker, *칼빈 신학 입문*. 박희석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 Van Til, Henry R. *칼빈주의 문화관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이근삼 역. 부산: 성암사, 1984.
- W. G. Kummel(킴멜), *신약성서신학*, 박창건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9.
- Walter C. Kaiser & Moses Silva, *성경해석학 개론*, 강창현 역, 서울: 은성, 1996.